

써니 sunny

각본/감독 강형철

제 작 토일렛 픽처스



1. 프롤로그. (title back) 나미의 집 - 아침

암전. tuck & patti의 time after time과 나지막이 들리는 시계 초침.

밝아지면 화면 가득 보이는 침대 옆 자명종 시계. 6시30분에 도착하는 초침.

요란하게 울리는 자명종. 하지만 채 목청도 내보기 전에 능숙한 나미의 손에 저지당한다.

잠시 잠을 깨는 듯 뒤척이더니 조용히 몸을 일으켜 나가는 주인공 나미의 실루엣.

그 옆으로 희미하게 잠든 남편의 모습.

- 깔끔한 고급 주방.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씻고 다듬으며 아침 준비를 하는 나미의 손.
만드는 음식들은 한식, 건강식, 서양식등 다양하다. 대강 분위기로 보아 좀 사는 집인 듯.

- 드레스 룸. 남편의 슈트, 딸의 교복 등을 정성스럽게 다림질하고 걸어놓는 나미의 손.

- 욕실. 세수하는 나미. 얼굴 보이면 40대란 나이가 무색하게 깨끗하고 정결한 얼굴.
주름이 생겼나 자세히 들여다보는 모습이 귀엽기까지 하다.

- 딸 미진(16)의 침실. 깨우는 나미. 또래가 그러하듯 일어나기도 깨우기도 힘들다.

- 침실. 힘겹게 일어난 남편에게 준비한 각종 비타민과 한약 등을 챙겨 먹이는 나미.

- 식탁. 둘러 앉아 식사하는 세 사람.

주방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time after time 이어지고 신문 보는 남편은 북 해장국,
문자 날리는 딸은 서양식 아침. 대화는 없다.

옆에서 열심히 이들의 식사를 시중드는 주부 나미.

남편 뉴스 줌.

미진 우유.

앉았다 일어났다 나미는 식사할 겨를도 없다.

나미 (앉으며) 할머니 병원 좀 가보지 들?

미진 (일어서며 건조하게) 잘 먹었습니다.

나미 (한 입 베어진 빵을 보며) 마저 먹어.

(그냥 가버리는 딸. 다시 남편에게) 응?

남편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알잖아.

섬섬하다는 듯 쳐다보던 나미. 하지만 남편의 반찬을 챙겨준다.

- 현관. 출근하는 남편과 등교하는 미진.

신발을 신고 지갑에서 상품권 봉투를 꺼내는 남편.

남편 당신거랑 장모님거랑 해서 뽕 하나씩 사.

나미 (뭐 이런걸 다)....

남편 (쳐다보는 딸을 보며) 너도 줘?

수표 한 장 꺼내다 말고 잠시 쳐다보는 남편과 딸.

국어책 읽듯 '아빠 사랑해요' 하자 꺼내서 준다.

집을 나서는 두 사람.

나미 할머니한테 전화라도 드려.

대답 없이 문 닫히고 홀로 남은 나미. 잠기는 문소리에 더 행~해지는 집안.

[Cut To - 시간경과]

식전의 그 동선 그대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을 정리하는 나미의 모습.

어디선가 리모컨을 누르는 듯 자꾸 바뀌는 TV소리. 드라마, 홈쇼핑 여성 용품 등을 지나 학교 폭력에 관한 내용이 나오자 채널 고정되고 청소도구를 든 채 나타나 집중하는 나미.

다시 이곳저곳 청소하는 능숙하고 전형적인 주부 나미.

TV 홈쇼핑에서 '남편의 건강'을 위한 상품이 나오자 다른 청소도구를 들고 나타나 수화기를 든다. 정신없는 정리가 끝나고 한 숨 돌리는 나미. 살짝 떨리는 손을 본다.

잠시 후, 발코니에 앉아 우아하게 차 한 잔....

대신 딸이 한 입 베어 물고 남긴 빵 조각과 우유를 병째 마시는 나미.

봄 햇살 참 좋다. 창밖으로 신나게 까불며 등교하는 한 무리의 날라리 여고생들.

그들에게 잠시 넋을 잃는 나미. 재밌다는듯 미소까지 짓는다.

다시 흐르는 time after time과 창가에 쏟아지는 햇빛이 만드는 main title.

써니 sunny

2. 병원 복도 - 오후

몇 몇의 환자와 간호사들이 오가는 병원의 긴 복도를 걸어오는 나미.

손에는 샤넬 쇼핑백이 들려있다. 스타킹 잘 신졌다며 인사하는 간호사 등...

3. 나미母的 병실 - 오후

4인 입원실. 팔에는 깁스를 한 채 사위와 통화를 하고 있는 나미母.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며 샤넬 백은 꼭 안고 있다.

그 옆에서 과일 깎는 나미. 병실안 사람들은 막장드라마에 폭 빠져있다.

나미뎌 사업하는 양반이 바빠야지. ...맘에 들고말고... (흡족) 샤넬인데. 하하하.
 신경 잡고 고만 일 보소. 번창하시게. 잉. 잉. 그러 그러..들어가소. 어이.
 (끓고 가방을 들어 보이며 환자들에게) 우리 사위가.

‘오오~~’ 하며 환호하는 아줌마 환자들.
 상이라도 탄 듯 손을 들어 화답하는 나미뎌. 재미있는 할머니다.
 웃으며 엄마를 보는 나미. 하지만 이내 허탈한 표정의 나미뎌.

나미 회사 인수라는 게 쉽지가 않나봐.
 나미뎌 흥 서방이 이렇게 잘될 줄은 어제 알았겠어? (한 숨) 니 오빠 저럴 줄은 어제 알고?
 나미 합의 잘 보면 된대요.
 나미뎌 (안경 꺼내며) 학교 때 노동 운동이다 뭐다 지랄을 하더만.
 나미 (포크로 과일을 찍어주며) 인생은 아이러니 한 거니께.
 나미뎌 넌 이제 사투리가 어색하고만.
 나미 아따 서울 사람 다 됐는갑지.
 나미뎌 (안경 끼고 백을 관찰하다가) 요새 봉봉은 안나오니?

4. 병원 복도 - 오후

봉봉을 사들고 돌아오는 나미. 복도를 지나는 와중 한 병실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급히 주사를 챙겨 들어가는 간호사 몇 명. 살짝 놀란 나미.
 들여다보면 간호사들에 가려 잘 보이진 않지만 고통에 몸부림치는 환자의 모습.
 병실 문 이름표에 시선이 간다. ‘하 춘화’

5. 서재 - 밤

남편의 서재. 책장 아래에서 몸을 숙이고 뭔가를 찾는 나미.
 옛날 앨범들과 학창시절 졸업앨범들 사이에서 00년도 00여고 00회 졸업앨범에 손이 멈춘다.
 꺼내서 몇 장 넘기다 보니 우수수 떨어지는 그림들. 어떤 소녀들이나 청년의 초상화들이 보인다.
 뭔가 독특한 그림체. 잠시 생각에 빠지는 순간 들리는 인기척.
 도둑고양이처럼 들어오는 미진이 보인다. 미진은 나미를 보지 못하는 상태.
 문 밖을 살피더니 책장 속 현금 보관함 속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는 미진.
 나름 대담한 딸과 달리 잔뜩 긴장해 어정쩡한 자세의 나미.
 이 때 책상 밑에 웅크리고 있는 엄마를 발견하고 기겁하는 미진.
 딸의 비명소리에 더 크게 놀라는 나미. 그 소리에 더 소리 지르는 미진. 겁쟁이 모녀.

나미 (놀래라) 돈 쥐?!!!
 미진 (울먹) 왜 거겼어?!!
 나미 아침에 아빠가 뵈잖아.
 미진 (짜증) 아 왜 거겼냐고?!

나미 필요하면 달라 그러지 왜 몰래 꺼내가?
미진 (버럭) 몰래 꺼내가긴 누가 몰래 꺼내가?! 자는 줄 알았지?!!

오히려 짜증내며 나가버리는 미진. 애가 무슨 일 있나 딸을 쫓아 나가는 나미.
책상위에 놓여 있는 나미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

6. 나미母的 병실 - 오후

침대에 앉아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나미母. TV에서 방영되는 연속극에 반 냇을 놓고 있다.
그 옆에서 반찬을 챙겨주는 나미. 따로 준비한 반찬 통에는 꼬막 무침과 젓갈 등이 있다.

나미母 그 나이가 다 폭풍의 계절이고 청춘에 몇인 거여.
 엄마는 뽀이 낫어도 사랑이 뭐길래? 아들과 딸을 둔 죄로
 완전한 사랑을 요구 받는 게 애민게지.
나미 연속극을 너무 보셨구만.
나미母 암튼 너 클때는 응? 다 알아서... 순하게... 그런 줄 알지?
나미 난 그 정도는 아니었지...
나미母 (이것아~) 그 정도 아니었지. 대박이었지 넌.
나미

다시 TV에 집중하는 나미母. 막장 드라마인 듯 욱하면서 열심히들 보는 병실안 사람들.

7. 춘화의 병실 앞 / 안 - 오후

도시락 통을 챙겨 들고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 나미.
어느 한 병실 앞을 지나다가 슬며시 들여다본다.
병실 앞 이름표 '하 춘화'

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잠시 고민 후 들어가 보는 나미.
둘러보면 잘 정리된 꽤 많은 물건들이 환자의 오랜 병원생활을 말해준다.
강아지 사진이 있는 작은 액자를 들여다보는 나미.
이때 갑자기 누군가 흥얼거리는 가수 나미의 '빙글빙글'.

춘화 (소리)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그저.....
나미 (화들짝 돌아보면!!!)

나미, 누구시더라 하는 눈으로 춘화를 쳐다본다. 마른 몸에 시니컬한 모습.
나는 너를 안다는 듯 묘한 미소를 띄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춘화.
이제 서서히 그녀를 알아보는 듯 한 나미. 고등학교 단짝 친구 춘화다.
서로 놀람과 반가움으로 그저 바라보는 두 사람.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진다.

[Cut To - 시간경과]

햇살 가득한 창가 앞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두 사람.
좀 전과 달리 심각한 표정의 나미. 그에 비해 뭔가 여유 있는 표정의 춘화.

나미 뭐래?...병원에선?
춘화 두 달 남았데나?
나미
춘화 두 달 동안 뭐 하고 노냐?
나미 많이 아파?
춘화 그냥(후~) 바늘 한... 천개가 동시에 막 찌르는 느낌?

춘화, 나미를 쳐다보면 걱정근심이 흘러넘치는 얼굴이 마치 겁먹은 소녀 같다.
이런 나미를 귀엽다는 듯 쓰다듬는 춘화. 이모가 조카를 만지는 느낌.

춘화 임 나미. 넌 나이 값 못하고 누가 아직도 이렇게 예쁘래?
나미 하 춘화..... (같이 쓰다듬으며) 너도 암 환자치곤 예뻐.
춘화 (웃다가 심각) 암 걸리면 뭐가 제일 힘든지 알아?
나미 (뻘뻘)...?
춘화 화장이 안 먹어.

서로 뻘뻘 보더니 웃는 두 사람.
어딘가 예전 소녀적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 때 울리는 나미의 전화. 남편이다.

나미 네.....응.....내일? 얼마나 가는데?.... 두 달이나 걸려? (춘화 쳐다본다)
알았어요. 지금 들어갈게..

나미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에 잠기는 춘화의 얼굴.
전화를 끊고 춘화를 바라보는 나미.
잠시 돌아갔던 소녀시절은 사라지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나미 (긴 통화에 약간 미안) 갑자기 출장 간다네. 남편.
춘화 가 봐야지?
나미 자주 올게.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춘화 (피식) 얼른 가.

시종일관 여유 있는 춘화와 달리 괜히 미안한 마음의 나미.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머뭇 인사하며 문을 나서려는 나미.

춘화 임 나미.
나미 응?

춘화 도와줄 거 생각났는데.
 나미 응. 애기 해?
 춘화 너 보니까 보고 싶네.
 나미 누구?
 춘화 씨니.
 나미
 춘화 죽기 전에 꼭 한 번 보고 싶어.

사뭇 간절한 춘화의 얼굴과 복잡하고 난감한 나미의 얼굴.

8. 나미의 집 침실 - 밤

불 꺼진 침실.

나미는 잠 못 들어 누워있고 화장실 다녀오는 남편, 침대에 눕는다.

나미 당신 건강검진 언제 받았지?
 남편 (피곤) 저번에.
 나미 큰 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았나?.... 큰 어머니가?
 남편
 나미 자?
 남편 ...누가 보험 들래?
 나미 ...오늘 병원에서 친구 만났는데 폐암이래..... 말기.
 남편 당신도 친구 있었어?
 나미 고등학교 친구. (생각해보니 기분 나쁜) 나 칠공주였다고 애기 안했나?
 남편 ...미전엄마.
 나미
 남편 임 나미.
 나미 왜?
 남편 갔다 와서 둘 째 만들까?
 나미나 폐경 왔어.
 남편

돌아눕는 나미. 하지만 남편은 잠든다.

9. 공항 외관 - 아침

고급 승용차에서 분주히 짐을 내려 카트에 싣는 운전기사.
 그 뒤로 나미와 남편의 모습.

남편 (차) 타고가. 전화 할게.

나미 혈압약 거르지 말고 무서운데 가지 마.
 남편 (돈 봉투 건네며) 미진이는 따로 좀 줬으니까 당신 다 써.
 나미 (너무 많다) 돈 있어.
 남편 친구랑도 좀 놀아주고... 얼마 안 남았다며.
 나미 (받으며) 미진이 연합고사 얼마 남았다고.
 남편 다녀올게.

미지근한 포옹을 하고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 자상한 듯 무심한 남편.
 봉투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라고 쓰여 있다.

10. 거리, 차 안 - 아침

출근 시간이라 좀 막히는 거리.
 뒷자리에 타고 있는 나미. 잠을 설친 듯 조신하게 하품을 한다.
 하지만 너무 벌어지는 입. 눈물까지 난다.

기사 (소리) 막힐까봐 시내 났는데 죄송합니다.
 나미 (무안) 괜찮아요.

이 때 차창 밖으로 등교하는 여고생들에게 시선이 가는 나미.
 큰 길 안쪽으로 녀석들이 합쳐지며 한 여고의 교문이 보인다.
 잠시 바라보는 나미.

나미 봉 기사님.
 기사 (소리) 네?

11. 학교 앞 - 아침 <현재 / 과거>

급히 등교하는 몇 명의 여고생들 틈으로 교문을 향해 서서히 걸어가는 나미의 모습.
 두리번거리며 가는 와중 나미와 살짝 부딪치자 죄송하다며 급히 뛰어나가는 여학생.
 교문 앞에 다다르자 추억에 잠기는 듯 멎는 나미의 발걸음.
 이 때 또 다시 나미와 부딪치며 지나가는 한 여고생.
 죄송 대신 '아 뭐야~' 짜증스레 지나간다. 가만 보면 어떤 일인지 사복을 입고 있다.
 바라보는 나미.

이 때 교복 입은 몇 명의 여학생들 사이로 80년대 풍의 사복을 입은 학생들 점점 늘어나더니
 마침내 소수의 교복은 사라지고 수많은 사복 여학생들이 분주히 등교하는 모습으로 바뀐다.
 나미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카메라, 그녀의 얼굴 보여 지면 고교시절 소녀 나미로 바뀌어 있다.
 한창 멋 부린 다른 여학생들과 달리 단정하면서 좀 촌스러운 느낌의 소녀 나미.
 교문 앞에서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다.

12. 과거 학교 복도, 2학년 교실 - 아침

80년대 아이들의 브로마이드로부터 시작되는 화면.

카메라 빠지면서 교실을 훑으면 시대가 물씬 느껴지는 왁자지껄한 수업 전 여교의 교실.

여고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유니크한 모습들이 벌어진다.

여기도 선생 온다고 알리는 정탐꾼 있고 일사분란하게 앉는 녀석들.

잠시 후 앞 문 열리고 나미를 데리고 온 담임선생. 만삭의 임신부다.

학생들의 인사를 받고 조희 시작하려는데 빈자리 발견하는 담임.

담임 (빈자리 보며) 저거 누구 자리야?

장미 (앞드린 채) 하춘화 화장실 갔는데요.

담임 장미야. 자면서 대답하지 마라 애. (배 만지며) 애 놀란다. (키득거리는 학생들)

장미 (앞드린 채) 자는 거 아닌데요.

담임 (답답) 그럼 인사 중인거니? (학생들 폭소)

(말자) 저기 이번에 전학 온 임(뒤편)..나미. 임 나미 학생이다.

전라도 별교에서 왔고 서울은 처음이니까 다들 잘 해주고.

(답답) 응? 장미야! (나미에게) 자기소개 해.

나미 (긴장) OO고등학교에서 전학을 와분....온 임 나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투리를 안 쓰려는 듯 지극히 어색한 말투.

그러나 티가 나는지 몇 명 키득거리자 얼굴 빨개지는 나미.

대충 박수 이어지고 빈자리로 간다.

가는 도중 띠껍다는 표정의 상미, 영진과 눈 마주치면 위축되는 나미.

자리에 앉으면 고개를 숙인 채 손거울을 보며 뭔가 하고 있는 옆 자리의 장미.

담임의 조희 이어지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는 나미의 시선.

대각선 앞자리에 한 여학생(수지)에게 시선이 가면 눈이 시원해 질 정도로 예쁜 한 여학생.

피비 케이츠의 국내버전 같다. 잠시 뉘을 잃는 사이 조희 끝나고 인사 후 담임 나가자마자 사운드 믹싱이라도 한 듯, 왁자지껄해지는 아비규환의 교실.

주변을 힐끗거리며 가방 정리를 하는 나미.

다른 학생들 둘러보면 나미의 눈에는 하나같이 세련된(?) 80년대 서울 멋쟁이 여고생들.

귀에 하나짜리 이어폰을 꽂고 있는 녀석들도 나미의 눈에는 웬지 세련되 보이고.

온통 나이키나 프로스펙스라 새 신발인 자신의 스펙스는 초라하기만 하다.

책받침도 자신의 것과 달리 최신 아이들의 것들임을 발견하고 슬쩍 숨기는 나미.

이 때 실실 웃으며 나미를 향해 다가오는 두 여학생. 상미와 영진. 역시 불량해 보인다.

상미는 책상 앞에서 얼굴을 들이밀고 영진은 빈 뒷자리에 걸터앉아 나미를 에워싼다.

어쩐지 영진은 상미의 꼬봉같은 느낌. 긴장하는 나미.

상미 (흥내) 전학 와부느라고 수고 했당게. 어디. 별교?

꼬막 나는 동네. 도시락 봐바. 꼬막 싸왔나?

나미 도시락 안 싸왔어.
영진 (정색) 너 우리 학폰 도시락 안 싸오면 정학인거 몰라?
나미
상미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신디 로퍼가 좋아 마돈나가 좋아?
영진 대답 잘 해야 된다잉.
장미 (엎드린 채) 야. 너네 안 가?
상미 (뻘뻘 보더니) 김 장미 많이 컸네.
장미 나 원래 우량 하거든?

계속해서 노려보는 상미. 헛웃음 날리며 화제 전환하는 영진.

영진 아~ 이것만 물어 보고. (나미에겐 무섭게) 누구? 신디야 돈나야?

난감한 나미. 이 때 가방 날라와 영진을 덮친다.

춘화 (소리) 난 하춘화.

보이시한 느낌에 생동감 넘치는 소녀 춘화의 모습.
맨 뒤 빈자리에 놓인 책이며 가방은 장미의 것이었고 이제 등교한 모습이다.
무섭게 돌아보는 영진. 하지만 춘화임을 발견하고 꼬리를 내린다.
보스의 기질이 느껴지는 소녀 춘화.
상미는 잠시 춘화를 노려보지만 이내 비소를 날리며 자리를 피한다.
장미에게 고맙다며 놓여 있던 책과 가방을 건내는 춘화.
나미에게 관심 있는 표정이다. 뻘뻘 쳐다보며 웃는 춘화.
또 다시 두려운 나미.

춘화 (나미 보며) 누구니?
장미 전학생.
춘화 (보자~) 어디서 왔어?
장미 (소리) 별교. 꼬막의 고장. 도시락 안 싸왔데.
나미
춘화 (피식) 이름 뭐야?
장미 (소리) 나미래. 나미. 임 나미.
춘화 나미? 빙글빙글 나미?
장미 (소리) 응.
나미(아 또).....
춘화 (악수 청하며) 나 춘화야. 하 춘화. 반갑다 나미.
나미 (엳겍겍에 악수하며) 반가워...
춘화 (피식) 예쁘네.

춘화의 시선으로 보이는 나미의 하얀 얼굴이며 목선. 묘하게 바라보는 춘화.

장미 (고개 돌리며) 나 이상해?

말도 끝도 없이 나미에게 얼굴을 들이미는 장미.
사제 쌍커피를 연마중인 듯 과도한 쌍커피.....과도하다.
흠칫 놀라는 나미.

나미
장미 (실망) 이상하구나....

다시 고개를 숙이고 쌍커피 수정에 여념이 없는 장미.
생각해보니 재미있는지 웃는 나미.
이때 자신을 뻔히 바라보고 있는 아까 그 예쁜 여학생 수지와 눈이 마주친다.
잠시 어쩔까 하다 같이 바라보며 웃음으로 인사하는 나미.

수지 뭘 봐?

그 예쁘장한 외모와 달리 살벌하고 차가운 수지의 반응에 다시 위축되는 나미.
이 모든 상황이 낯설고 두렵기만 하다. 울리는 수업 종.

13. 과거학교 복도 - 점심시간

위 썬의 수업 시작종이 종료 종이 되고 하나 둘 씩 교실 문 열리며 나오는
선생들과 학생들. 그 중 어디론가 급히 뛰어나가는 한 학생을 쫓는 카메라. 방송실로 들어간다.

14. 과거 학교 방송실 - 점심시간

LP를 고르고 헤드폰을 쓰고 스위치를 올리는 D.J 학생의 손.
오프닝 음악을 조율하며 제법 진짜 D.J처럼 멘트를 날리는 학생.
녀석의 멘트가 나가는 동안 활기찬 여고의 점심시간 풍경 보여 진다.

D.J 오늘도 어김없이 곱창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천 이백 덕성인들의 활명수 D.J 흥 인사드리면서 날려드리는 오늘의 첫 곡.
rick astley오빠의 never~. never gonna give up!

신나게 돌아가는 턴테이블.

15. 과거 학교 매점 - 점심시간

위 음악 흐르고 매점으로 들어선 나미의 시선으로 소개되는 풍경.
당시 아이돌 브로마이드를 보며 소리 지르는 빠순이들이며 인디안 밥 등 인기 식품을
주문하며 소리소리 지르는 여학생들. 아비규환의 매점. 이 모습이 두려우면서 신기한 나미.

밀리는 인파에 이리저리 채이는 와중 어깨에 팔을 감는 누군가의 손.
춘화다. 그 옆에 장미.

춘화 가수끼리 점심이나 할까?

춘화에게 이끌려 매점을 가로지르는 나미.
지나가는 길을 알아서 피해주는 학생들로 보아 춘화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이때 장미의 궁둥이를 치며 다가온 한 녀석. 욕쟁이 진희다.

진희 밥이 넘어가지? 이 우량한 년아.
장미 그래서 빵 먹을라고 왔잖아.
진희 (나미 보며) 누구래?
춘화 어 전학 온 나미. 임 나미. 이쪽은 황 진희.
장미 국문과 교수집 딸내민데 입만 열면 욕지거리여.
진희 어머. (교양있게) 미친년 똥 싸네. (나미에게) 어디서 왔니?
장미 전라도 벌교.
진희 (관심) 거기 사람들 진짜 욕 잘하니?
나미 ...안 그래.
장미 잘하면? 왜? 전학 가시게?
 (누군가 발견) 어이! 서금옥이! 사라다 빵 네 개 추가 !!

저쪽 인파 속에서 이것저것 주문을 하던 금옥.
이쪽 꽤거리를 보며 반갑게 손을 흔든다.
학생들 인파에 밀리는 금옥의 모습.

춘화 서 치과 집 무남독녀 금이야 옥이야 서 금옥이.
 다구발만 안 세우면 참 참한데.... 말이지.
나미 다구발이 뭐대?

춘화가 가리키는 금옥의 모습.
어느새 뭔가를 집어 들고 물리는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다.

복희 (소리) 하 춘하씨~~!!!

일제히 돌아보는 녀석들. 미스코리아 포즈로 서 있는 복희.
손에 들린 포스터를 '취락~' 펴면 엄색약 웨미닌 광고에 나온 복희의 사진이 보인다.
머리엔 미스코리아 왕관에 경극 수준의 화장발.
'뽕!' 비웃는 녀석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이상한 사진이 너무 만족스럽다는 표정의 금옥.
둘둘 말아 미스코리아 행진을 하듯 다가온다.

장미 명동 미용실 깃발이 좋긴 좋구만. 니 엄마 사채 쓰셨대냐?
복희 (미스코리아 말투&행동) 예뻐서 뽐렸습니다.
 (나미 보며) 애가 전학생? 반갑다 애. (나미에게) 나 미스코리아 나가야 되거든.

진희 나미 학교나 잘 나와 이년아.
 복희 (미스코리아 말투) 지랄 떨지 마십시오.
 장미 너 되면 너네 미용실에서 응? 나 쌍커풀? 약속 했다?
 진희 수지년은 어디갔데니?
 춘화 밥 생각 없다고 한 대 빨다 오신단다.
 나미 (뭘?).....
 춘화 (담배 흉내 내며) 이거. 이거. (놀라는 나미)
 아까 우리 반에 예쁜 애 봤지? 피비 케이츠 같이 생긴 애. 수지.
 개 까지 해서 우리 멤버야. 멤버.
 장미 야 근데 너네 집은 뭐 하나? 우리학교 사립이라 오기 힘든데?
 나미
 금옥 (언제 왔는지) 애가 전학생? (나미 신발 보며) 스펙스네?
 나미 (아 쪽팔려).....

16. 과거 나미의 집 거실 - 저녁

저녁식사시간의 나미의 집 거실. 아직 이삿짐 정리가 덜 끝난 듯 짐들 쌓여있다.
 로터리식 컬러 TV에선 당시 광고 나오고 연로한 할머니와 나미의 부모, 대학생 오빠와 나미.
 전형적인 가정식 식사를 하며 둘러 앉아 있다.
 힐끗 나미를 보는 나미모. 지금은 팽팽한 40대 영계(?)의 모습. 대화는 진한 사투리.

나미모 어제 그래 말이 없을까 우리 딸내미는?
 나미
 나미모 아빠네 부장님이 특별히 그거 해서 서울대 많이 간다는 학교로 어렵게
 그거 했는데, 친구들 많이 사겼는가?
 나미 자꾸 말 걸지 마쇼. 사투리 교정해야 땡께.
 나미모 (서울말) 너 사투리 하나도 안 써. 서울 애 같아.
 나미 (짜증) 서울 애들 다 스펙스 신는담서? 우리 반 애들 다 나이키 아니면
 프로 스펙스만 신더만? 바지도 뱅뱅 산다니깐 초다쉬 좋다고...
 오빠 (버럭) 야! 너 지금 저기 공단에서 너 만한 애들이 신발하나 살라면
 잔업을 얼마나 하는지 알기나 해?

딱 봐도 철부지 운동권 대학생 느낌의 나미 오빠.
 어디서 갓 학습한 문어체 운동권 말투다.

나미모 앤 모르지.
 오빠 그게 문제라는 거요. 이 땅의 주인인 노동자들이 종속파시즘의 헤게모니에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이때에 고작 미제 나이키나 운운하며..
 (뉴스에서 나오는 전두환 보며) 저거 저거. 아버지도 언제까지 이 더러운
 정권 밑에서 공무원이란 이름으로 저자의 하수인 노릇을 할겁니까?
 아빠 하수인?

오빠 (좀 심했나? 하지만 여전히 흥분).....직원...

아빠 야. 이 놈새끼야. 니 잘난 등록금은 어디서 나고 허구한 날 처먹고 다니는
니 술값은 어디서 나는 거 같냐? 노동운동이건 복근운동이건 니가 벌어서 하던지
내 돈 받아쓰는 동안은 조용히 학교나 잘 다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오빠 아버지.

아빠 시끄러.

오빠 (비장) 인생은 짧고 혁명은 깁니다.

할머니 (다짜고짜) 이런 씨부랄! 인생이 왜 짧아?
(이하 들도 보도 못한 현란한 욕 퍼레이드 후 상냥하게)
국 좀 더 주세요~.

치매 끼가 있는 할머니. 잠시 쳐다보던 가족들. 그러나 늘 상 있는 일인 듯 다시 식사에 열중한다.
TV속 전두환을 보며 저런 인상이 나중에 대통령될 상이라며 좋아하는 할머니.

17. 과거 학교 교실, 국어 시간 - 오후

국어 선생인 담임의 수업시간. 칠판에 한 장 뭉가 적고 있다.
여전히 고개 숙인 채 쌍꺼풀 만들기에 여념 없는 장미.

담임 주변.

장미(아 쟤장).....

담임 주변!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일어서는 장미. 이제와는 다른 버전의 쌍꺼풀.
칠판에는 한자로 등화가친이라 적혀 있다.

담임 읽어봐.

장미 선생님.

담임 화장실 갈라면 읽고 가.

장미 질문을 주변에게만 하시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알았어. 앉아. (앉는 장미) 그럼 십 이번.

앉자마자 일어서는 똥 씹은 표정의 장미. 웃는 학생들.

담임 장미야. 니 쌍꺼풀이 제일 부당해.
태교에 얼마나 안 좋은 줄 아니 응? 그 옆에.

머뭇머뭇 일어나는 나미.

나미 (긴장) 등화가친. 촛불을 가까이 하기 좋다.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기 좋은 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오~~ 환호하는 몇몇 학생들.

담임 (기특한) 임 나미. 너 저번 학교에서 계속 전교 1.2등 했더라.

학생들 (더 크게) 오오오오~~~!!!!

담임 사생대회 나가서 상도 많이 타고.

학생들 오오오오오오오~~~!!!! (장미도 같이)

담임 아 시끄러! (나미에게는 부드럽게) 미대 갈 꺼니?

나미 아직.....모르겠는데요.

담임 이따 교무실 들러. 이번 사생대회 신청서 나왔더라.

나미네.....

담임 장미도 시간 날 때 한 번 들러. 그 눈탱이 아주 확 찢어줄게.

신나는 학생들. 이어지는 수업.

18. 과거 학교 복도, 교무실 / 현재 학교 복도, 교무실 - 오후

쉬는 시간. 교무실 앞 복도로 걸어오는 소녀 나미.

머뭇거리다 교무실로 들어간다. 카메라 동선 이어지며 보여 지는 교무실.

각종 노트북이며 교복학생들이 보이는 현재의 교무실로 장면 전환된다.

소녀 나미의 동선 그대로 들어서는 현재의 성인 나미.

한 선생을 알아보고 다가가 부르는 나미. 돌아보면 많이 늙은 그 담임 선생의 모습.
누구시더라 하는 눈으로 쳐다본다.

[Cut To - 시간 경과]

담임 (감탄) 넌 어쩔 하나도 안 늙었니? 피부 좀 봐.

나미 선생님도 안 변하셨어요.

담임 나 다음 달에 할머니 된다 애. (속삭임) 과속했어. 과속스캔들. 요새 혼수래잖아.

이 때 주변인 듯 쌍커피 한 학생 출석부 놓고 가면,

담임 눈 했구나? (네) 봐봐. 잘됐다 애.

(아 맞다) 얼마 전에 장미도 왔다갔어. 연락 하니?

(서랍 뒤지며) 명함 주고 갔는데.

19. 현재, 보험회사 - 오후

보험회사의 회의시간.

보험 아줌마들 준비한 가운데 실적표 앞에 놓고 브리핑하는 젊은 담당자.

화를 매우 참고 있는 느낌이다.

담당 잘들 하셨어요. 잘들 하셨는데... 김장미 설계사님.
장미 (소리) 네.
담당 (숨쉴) 아시죠?
장미 (소리) 알죠.
담당 (바닥인 그래프 가리키며) 힘. 내세요.
장미 힘. 내야죠.
담당 (목표지점 찍으며) 여기까지는 하셔야...(후~)눈도 하시죠.

키득거리는 아줌마들. 담당의 브리핑 이어지고
이 때 울리는 장미의 전화. 눈치 보면 그냥 받으라는 담당.
돌아서 전화를 받는 장미의 얼굴. 과도한 썹커풀이 인상적이다.

장미 네. 인생의 동반자 우리 생명 김장미입니다~.

20. 현재, 춘화의 병실 - 오후

춘화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통곡하는 장미.
덩치 큰 장미에게 안겨 공중에 떠있는 춘화.
나미에게 찾아줘서 고맙다는 듯 웃으면 미소로 답한다.

장미 (통곡) 25년만에 죽는다고 나타나는 년이 어딴어? 이 나쁜년아.
아속한 년아. (한참 통곡하더니 울음 뚝) 보험은 좀 들어왔니?

[Cut To - 시간 경과]

언제 눈물바다였냐는 듯 웃음꽃 만발한 병실. 장미의 수다 울려 퍼진다.
춘화와 나미는 앉아 있고 장미는 침대에 널브러져 나미가 주는 과일을 받아먹고 있다.

장미 (신났다) 야 진짜 인간 김 장미 보험 아줌마 될 줄 누가 알았겠냐?
남편 그 시기 사업한다고 말아먹은 돈이면...(어우)
너(춘화) 이혼 잘 한거야. 그래도 어떻게 한 번을 안 찾아오냐?
춘화 (피식) 애도 없겠다 완전 남 된거지.
나미 그래도 외롭지 않니?
춘화 돈 버는 재미에 몰랐었는데.. 병원에 이불 깔고 보니까 좀 그렇기도 하네.
어디 삼삼한 홀애비 없니? 연애나 질편하게 하다가 가게.
나 돈 많고 명 짧은 여자잖니.

맞다며 자지러지게 웃는 장미.
소녀적 휴식시간 같은 느낌의 세 사람.

21. 현재, 병원 앞 - 오후

병원 앞을 나란히 걷는 나미와 장미.

장미 우리가 찾아 주자 애. 춘화가 비용 다 낸다잖아. 너 뭐 하는 일도 없다며?
나미 남편이랑 애 봐줘야지.
장미 니 남편이랑 애는 아직 기저귀 차고 땡기데냐? 아~ 말아. 나 혼자라도 찾을래.
나미 어떻게 찾을라고?

22. 현재, 홍신소 - 오후

10평정도의 조그만 사무실. 홍신소란 선입견과 달리 나름 전문적이고 깔끔한 느낌.
소파에 나란히 앉아 짧은 사장의 설명을 듣는 나미와 장미.

사장 내전지역만 아니면 외국 사서도 한 달이면 충분히 찾겠네요.
합이 네 분. 가격은 뭐 사모님(장미)이 잘 아시니깐..

전화벨 울리면 잠시 사장 자리 비우고.

장미 (자랑) 전에 남편이랑 빗쟁이들 피해서 짱 박혔을 때, 진짜 잘 숨었거든?
나중에 알았는데 저 사람이 우리 찾은 거래. 그때 우리 완전 개 고생했잖아.
나미종니?
장미 하여간 잘 찾으니깐 우린 그냥 가서 만나기만 하면 되.
사장 (앞으며) 근데 피발견자 분들이 저희 통해서 만남이 주선되면 좀 그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종이 건네며) 이거.
상황별로 자연스러운 만남 정리해 논건데. 맘에 드시는 걸로 고르시면 되고요.
장미 (페이퍼 보더니) 그럼 그때 나 무료 성형 당첨 되서 나갔다 절린게...
사장 거기 뒷장에 있어요.
장미 (젠장).....

경쾌한 음악 흐르고

23. 현재, 나미의 집 - 아침

방문을 박차고 나와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는 나미의 딸 미진. 지각이다.
정신없는 와중 급히 토스트를 챙겨 먹으려는 나미.

나미 한 입만 먹고 가.
미진 아 진짜 엄마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나미 아까 계속 깨웠잖아. 양말 신고 가야지!

급히 양말을 건넨다는 것이 브래지어를 주는 나미.

미진 (짜증 짝) 아 진짜. 뽀스도 주지?!!

앗! 실수. 다시 급히 양말을 집으려는 나미.

24. 과거, 나미의 집 - 아침

양말 든 손으로 장면 전환 되며 과거 나미의 집. 소녀 나미도 지각인 듯 정신없다.
밥 한 숟가락이라도 먹이려 밥그릇을 들고 서 있는 나미의 모습이 현재 나미와 흡사하다.

나미의 당뇨끼 땀 한 끼만 건너도 벌벌 떠는 년이. 아 한 숟갈만 물어.

나미 그걸 아는 양반이 딸 잡을 라고 안 깨웠소?

오빠 아 어무니. 재 밥 주지 마쇼. 지금 민주열사들은 독방에서 소죽 한 그릇 먹...

나미의 아 시끄러! 감옥이 콩밥이지 무슨 소죽이여?

할머니 이런 씨부랄! 무국 달랬더니 또 소죽질이야?!!

나미의 아 엄마! 무국 끓였잖아!!

난장판인 아침시간의 집구석. 양말 신을 시간도 없어 가방에 넣고 급히 신발을 신는 나미.
뭔가 짐수리를 한 듯 망치를 들고 들어오는 아버지와 부딪치며 급히 뛰어나간다.
왜 이 난리가 쳐다보며 신발장 위에 뭔가를 찾는 나미 父.

나미의 여 공구 가방 어디갔데?

나미의 아 잘 찾아봐요.

나미 父, 신발장 위를 바라보면 놓여 있는 나미의 가방.

25. 과거 교실 - 오후

수업시간. 공구 가방을 옆에 걸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맨발의 나미.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가짜 속눈썹을 만지고 있는 장미. 피식, 나미를 보고 웃는다.

맨발이 창피한 듯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바지로 가리는 소심한 나미.

수업 종료 종 울린다.

학주 너네 담임 선생님 진통 와서 병원 갔으니까 종례는 없고

(나가며) 토요일이라고 싸돌아다니다 걸리기만 들 해봐.

학생들 네~~.

선생 나가고 우르르 하교하는 녀석들.

장미에게 빌린 교과서를 고맙다고 건네며 주섬주섬 일어설 준비를 하다가

진희, 금옥, 복희가 들어와 에워싸자 다시 앉아 공구가방으로 발목을 가리는 나미.

진희 (흥분) 아~ 니기미. 결전의 날이 다가 온 거지. 연장 쟁겨들 왔지?

장미 (씨익~) 난 이거(가짜눈썹) 쟁기느라...

진희 넌 그거 들고 싸워 미친년아. (형광등 뽑는 금옥 보며) 뭐 해 이 년아?

금옥 나도 깜빡 해서. (안 뽑힌다)

진희 (한심) 아~쪽수가 딸리네 쪽수가. 칠공주는 꼭 일곱 명이 해야 되는 거야?
개네 이름 바꾼거 들었냐? 아 존나 촌시러.

이름 가지고 어찌고저찌고 하는 사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며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 나미.
이 때 공구 가방에서 육중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몽키 스패너. 순간 얼음이 되는 녀석들.

26. 과거 어딘가 뒷동산 - 오후

소각장, 들판 등을 지나 외판 동산으로 걸어가는 7명의 소녀들.

성큼성큼 걷는 녀석들과 달리 나미는 공구가방 끌어안고 종종 걸음으로 불안하기만 하다.
이런 나미가 불만스러운 수지.

수지 애는 왜 데려 가는 거야?

춘화 (피식) 연장까지 쟁겨 왔잖나. 한 명 모자르다매?

(나미에게) 대충 이빨 까다 끝나는데 혹시 싸움 나면 뒤에 가서 숨어.

누구 쫓아오면 도망가고. 그리고 (강조) 절대 눈 마주치지 마.

나미 응....

금옥 그냥 한판 뜨자니깐. 연장 많구만.

귀엽다는 듯 톡 치고 앞서가는 춘화. 하지만 불안하기만 한 나미.
당 수치가 올라(내려)가는지 손을 심하게 떤다.

나미 장미야.

장미 왜?

나미 혹시 뭐 먹을 거 없어?

장미 (어쭈) 여유 있네.

(생각해보니 기분 나쁜) 야. 넌 내가 맨날 먹을 거 달고 다니게 생겼냐?

진희 먼저 왔네 씨발. 소녀시대.

황량한 동산에 먼저 와서 삐딱하게도 서 있는 여상 일진 7명. 소녀시대.

패션 참으로 첨단이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치하는 두 그룹의 고딩들.

서부영화의 대결구도...라고 하기엔 좀 어설프다. 덩치 큰 장미 뒤에 숨는 나미.

리더 어이 하춘화씨. 우리가 무슨 세랭게티에 한 마리 외로운 호랑이도 아니고
그렇게 영역 표시를 해야 되나? 뽕고뽕고 좀 나눠쓰자는데.

춘화 그러게 왜 거기서 우리 학교 애들 뺑을 뜯냐고?
 (피식) 그리고 세랭게티면 사자지 이 무식한 년아. 여상 야간 티를 내요.
 리더 (짜증 팍) 호랑이도 몇 마리 있을껄?!!!
 (나미 발견) 어이. 거 뒤에 아해는 뭐냐?
 (피식) 쪽 수 맞출라고 중학생 데려왔냐? 줄라 떠네? 오줌 쌀라 그런다.
 춘화 (심각) 나 진짜 애 까진 안 데려올라 그랬는데.
 나미
 춘화 너네 빙의라고 들어봤지? 빙의.
 리더 들어봤지..... 남극이랑 북극에 있는 거.
 춘화 그건 빙산이고 빙신아.
 리더 (짜증) 그게 뭤테?!!
 춘화 귀신이 들렸단 말이지. 빙의.
 일동
 춘화 애가 일명 맨발의 광녀라고 남쪽 동네에선 유명한 애거든.
 지금 애 떨지. 올라고 하는 거야.
 리더 뭐가?
 춘화 ...귀신!
 리더 ...!!.....
 춘화 아침에 작두 타고 오느라고 양말도 못신었텐다 야.
 (음산) 애랑 눈 마주치지 마라. 귀신 읊는다.
 리더 (약간 동요) 지랄 떠네.

나미를 슬쩍 쳐다보는 칠공 리더. 살짝 눈이 마주치면 움찔한다.
 뒤로 물리서며 나가라는 손짓하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오는 칠공 중 한 명.
 춘화도 손짓하면 앞으로 나서는 욕쟁이 진희. 욕 배틀이 시작된다.

춘화 (나미에게 속삭이듯) 눈만 마주치지 마.

예전 선비들이 시조를 주고받듯 혹은 랩배틀을 하듯 한 소절씩 욕을 하는 진희와 상대편.
 이런 와중 더 심하게 떨고 있는 나미를 못마땅하게 보는 수지.

수지 야. 쪽팔리게 떨지 말고 꺼지던가 가만히 있던가?

당 수치 때문에 몸은 계속 떨리지만 자존심이 상한 나미.
 이 때 욕 배틀에서 진희는 점점 밀리고 있고, 장미는 붙이고 온 속눈썹이 불편한지
 연신 눈을 깜빡인다. 결국 눈썹을 떼고 다시 붙이려는 와중 바닥에 떨어지면 좁는 장미.
 장미가 좁느라 몸을 숙인 와중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든 나미 마침내 폭발한다.

나미 이런 씨부랄!... (예전 할머니가 했던, 수준이 다른 현란한 욕 퍼레이드)

장미가 몸을 숙인 관계로 확실히 보이는 나미의 모습.
 당 수치에 몸을 떨고 눈을 안 마주치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욕하는 모습이
 미친년 그 자체다. 상대에게 공포를 남겨주기에 충분한 나미의 엽기적 모습.

28. 몽타주 - 과거 나미의 학교생활

나미의 '보이네' 흐르고...

[아침. 교실]

장미는 여전히 쌍커피에 여념이 없고 급히 교실로 등교하는 나미.
이번엔 나미의 자리에 세팅을 해 준 장미. 고맙다며 앉는 나미.

장미 오~

보면 광나는 나이키를 신고 온 나미. 우쭐한 미소 날린다.
가방을 정리하는 나미. 책받침은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최신 아이돌의 것이다.
귀에 하나짜리 이어폰을 꽂는, 다른 아이들과 동질화된 느낌의 나미.
12선에서 나미를 괴롭혔던 상미. 띠죽다는 듯 바라본다.

[방송실]

몽타주선 시작부터 흐르던 음악(나미의 '보이네')의 근원지.
D.J를 보던 방송반 학생이 혼자 음악에 심취해 춤을 추고 있다.
그 음악 계속해서 흐르고....

[매점]

춘화 장미와 함께 매점에 간 나미.
진희 금옥 복희가 합세하고 나미와 반갑게 인사한다.
어느덧 이들과 자연스레 섞인 모습의 나미.

[교실]

미술 시간. 모델이 되는 몇 학생을 중심으로 둘러 앉아 초상화를 그리는 학생들.
모델 중에는 수지도 있다.
자신의 자리에서 이런 수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나미. 독특한 그림체.
하나 둘씩 나미 뒤로 다가와 감탄하는 학생들. 춘화와 장미도 있다.

춘화 (대뜸) 오오~, 좀 그리는데.

궁금한 듯 바라보는 수지에게 미소 짓는 나미. 하지만 여전히 싸늘한 수지.

[장미 집]

나미를 둘러싸고 있는 써니 멤버들. 글을 쓰는 금옥과 그림을 그리는 나미.

문예부가 맞춤법을 틀렸다면 복회를 타박하는 장미.
장미가 틀린거라며 단채로 구박하는 녀석들.
모두의 얼굴을 그린 그림으로 정성스럽게 예쁜 엽서를 만들고 있는 나미.
감탄하는 녀석들.

29. 과거, 나미의 집 - 밤

거실에서부터 나미 방으로 길게 늘어진 전화선. 선을 따라가는 카메라.
이불 속에서 라디오를 켜 채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나미가 보인다.
라디오에서는 이종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되고 있고,
나미의 할머니는 코까지 골며 깊이 잠들어 있다. 엎드려 전화 삼매경에 빠진 나미.
춘화 집에서 자고 가는 진희와 삼자 통화를 하고 있다.

춘화 앞으론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통화할 수 있을 거야. 길거리에서.
그럼 지금처럼 연락 안돼서 못 만나고 안 그러는 거지.
나미 그러면 진짜 편하겠네. 친구끼리 계속 만날 수 있고.
춘화 컴퓨터도 들고 다닐거야. 거기서 편지도 쓰고... 라디오도 보고.
나미 라디오를... 봐?
춘화 보겠지. 미란데.
진희 아 이년 또 소설 쓴다 소설 써. 왜 미래엔 물도 사먹는다고 그러지?
춘화 야. 너네집 가..... 물을 어떻게 사먹냐?
진희 그 애긴 왜 안해주냐? (전화 뺏으며) 엠병. 야(나미). 애가 미래엔 전화기로 사진도 찍고 텔레비도 보고 그런덴다. 참 나.
춘화 야. 나온다. 나온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별이 빛나는 밤에'의 D.J 이종환의 목소리.
각자의 집에서 라디오를 듣는 녀석들의 모습.
그의 멘트에 따라 기뻐하고 감동받고, 혹은 졸고 있는 소녀들.
자는 듯 보였던 할머니, 잠시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우리 강아지~'하며 나미를 쓰다듬는다.

이종환 다음은 성북동에서 작가를 꿈꾸는 여고생 서 금옥양의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들 춘화. 수지, 진희, 장미, 복희, 그리고 나미와 함께
영원토록 우정을 쌓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 멤버가 이름이 없어서 어찌죠?
이종환 오빠가 만들어 주신다면 평생 저희 우정 변치 않을게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 네. 서 금옥씨. 예쁜 엽서 잘 받았습니디. 저한테 큰 부담을 주시네요.
(잠시 생각) 밝은 소녀들의 얼굴을 생각하니 씨니가 어떨까 해요.
화창하면서 명랑한 느낌. s.u.n.n.y 씨니.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날들을 보내는 소녀들에게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리차드 샌더슨의 reality.

흘러나오는 음악. 행복한 나미.

30. 현재, 나미의 집 - 저녁

거실의 고급 오디오에서 흐르는 위 음악.

흥얼거리며 빨래를 정리하는 나미. 미진의 교복이 눈에 띈다.

퍼보다가 자연스럽게 조끼를 걸쳐보는 나미.

거울에 비친 모습에 만족스러웠는지 치마까지 걸쳐본다.

중학생 딸의 교복이 잘 맞고 어울리는 나미. 스스로 감탄.

이리 저리 거울에 비춰보는 순간 빠르게 비밀번호 눌러 열리는 문.

미진 들어오며 딱 마주친다. 교복 입은 두 모녀의 황당한 대치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나미, 결국 소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얼굴만 내밀고 있다.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는 미진. 하필 이때 1m 앞 티 테이블에서 울리는 나미의 핸드폰.

받지도 가만있지도 못하던 나미, 결국 오리걸음으로 걸어가 전화기를 집는다.

미진 (방으로 들어가며) 사 입어.

쭈뼛난 나미. 교복 벗으며 전화를 받는다.

나미 어. 장미야.... 진희? 욕쟁이 진희?

31. 현재, 골프장내 클럽 하우스 - 오후

긴 복도 옆 테이블에서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는 성인 진희와 남편, 그들의 일행들.

그 중 유난히 우아를 떨고 있는 성인 진희.

진희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지만 요새 애들 어쩔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천박하게.

그래도 우리 때는 고상하게 놀았잖아요. 책 읽고 클래식 듣고...

맞다며 동조하는 사모님들. 이 때 진희 앞의 주스를 툭 치고 가는 장미, 그 옆의 나미.

하마터면 욕 할 뻔한 진희. 미안하다며 닦아주는 장미에게 건성으로 괜찮다고 한다.

나미 어머. 너 진희 아니니? 황 진희.

진희 나미? 장미 아니니?

장미 (썩익) 왜 아니겠어?

[Cut To - 다른 테이블]

역시나 우아 떠는 진희.

이런 진희를 못 봐주겠다는 표정의 장미.

진희 나미는 하나도 안 늙었다 애. 한 번에 알아봤어.

장미는(쌍꺼풀을 보고 쪼개며)....그대로네.

장미 (대뜸) 너는 못 알아보겠다. 야. 입 빼고 다 고쳤네. 세상에.
 진희 뭘 고치긴 고쳐? 애는? 비염 때문에 코만 살짝 했는데.
 (빨히 보는 장미) 눈썹 짙어서 눈 조금... 하고.

이때 다가오는 진희 남편. 뒤에서 진희를 끌어안는다.
 '폼' 사례 걸리는 장미.

남편 한 바퀴 돌고 올게 천천히 얘기 나누고 와. 학교 때 친하셨나 봐요?
 진희 같은 서클이었어요. 스터디....
 장미 큼..
 진희
 남편 이 사람 학교 때 어땠습니까?
 진희 (웃고는 있지만 뜨끔).....
 나미 진희가 좀.... (웃음 참으며)우아했어요.
 장미 (키득) 욕쟁이 중에서..
 진희 (이 년들이).....
 장미 (웃음 터진) 패싸움 나가면 주둥이가 연장이라..
 진희 어머 여보! 여자들 끼리 얘기 좀 하게....저기 들 기다리시네요.

진희에게 답살 애정행각 날리며 자리를 뜨는 남편.
 그가 뜨자 교양 있는 미소는 유지하지만 장미가 못마땅한 진희.

진희 장미 뭐 안 좋은 일 있었나보다? 그치?
 장미 (키득) 아니 나는 웃겨서 그렇지.
 진희 (썰까며 나미에게) 그래 어떻게 지냈어? 애는 몇 살이니?
 나미 중 3. 나 닮아서 예뻐.
 장미 (대뜸) 너 젖도 했구나? 완전 수박됐네.
 진희 (약간 열 받은) 무슨....교양없게. 나미 남편은 무슨 일...
 장미 우리가 스터디냐? 불량 서클이지.
 진희 (폭발) 아 씨발 진짜..... (진정) 그만 해라 애.
 나미 진희야. 너 춘화 만나러 안 갈래?
 진희

32. 현재, 골프장 카트 주차장 앞 - 오후

빠르게 걸어가는 진희. 그 뒤를 따르는 나미와 장미.
 진희는 뭔가 기분이 상한 듯 하다.

진희 불륜들이나 쫓아 다니는 그런데 통해서 찾았다는 게 난 좀 그러네.
 장미 뭐가 그러냐? TV는 사랑을 싣고. 뭐 그런 거지.
 진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뒷조사 당하는 게 좋겠니?

나미 춘화가 얼마 안 남았다니까. 우리가 찾으면 오래 걸리잖아.
 진희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지. (장미에게) 너 거기 명함 있어?
 장미 왜?
 진희 있으면 빨리 줘봐. 얼른!

주섬주섬 명함을 찾아 건네는 장미. 빼앗듯 쟁기는 진희.
 좋지 않은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는 나미.

진희 그런 교양 없는데 내 개인정보 보관돼 있는 거 못 참아 난.
 나 먼저 간다. 연락 하자.
 나미(버럭) 야 황 진희!

놀라는 장미와 진희.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컸나 싶은 나미.

나미 넌 욕할때가 이빠.

잠시 쳐다보다 급히 카트를 몰고 가버리는 진희.
 사고 날 뻔 하자 자연스럽게 욕 나온다.

33. 현재, 나미의 차 안 - 저녁

운전석의 나미, 보조석의 장미. 투덜거리는 장미.

장미 말이야. 남편이 빌딩이 두 개면 두 개지? 사람이 변해도 어쩔 저렇게 변하나?
 나미 세월이 그런거지.
 장미 야. 난 니가 소리 뻥 지를때 욕 한번 시원하게 쏘주는 줄 알고 은근 기대했잖아.
 나미 (피식) 한 번 해줄걸 그랬나?
 장미 간만에 한 번 해봐라. 응? 응?
 나미 안 해..... 미친년아.
 장미 (신났다) 그거 말고. 또 옛날에 하던거.
 나미 뭐... 이런 씨부랄 데쳐먹을 년.....이런 거?

그 고상한 얼굴로 살벌한 욕을 하는 나미. 신나게 웃는 두 사람.
 이 때 갑자기 나미의 옆으로 경적 울리며 바짝 대는 차.
 나미의 차가 기어 간 듯 자전거 도로냐며 신경질이다.
 죄송하다며 급 조용해진 나미. 신경질적으로 사라지는 옆 차.

장미 욕을 해줘야지. 욕을.
 나미 어우 놀래라..... (장미 보며) 씨발.

또 다시 웃는 두 친구.

34. 현재, 홍신소 - 오후

사장으로부터 서류를 받는 나미.

사장 거기 적힌 대로 만나시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친구 분은 안 오셨네요?

나미 네. 며칠 연수 간다고 해서.

사장 나머지 두 분도 몇 주 내로 찾아 드릴게요.

나미 네. 저 근데...(조심스레 종이 한 장 꺼내며)

별도로 이 분 좀 찾아 주실 수 있나요?

성함이랑, 나이는 아는데.

사장 (보더니) 네. 뭐 이정도면 금방 찾죠.

인사하고 일어서는 사장. 파티션 뒤 쪽의 가려진 고객에게 간다.

사장 사모님. 그만 가보셔도 돼요. 접수 잘 했습니다.

(반응 없자) 비밀 철저히...(뭐라 하던) 네?

파티션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급히 저리 가라는 손짓은 보인다.

사장 가고 다른 방에서 서류를 들고 나오는 한 직원.

직원 아 계셨네. 황 진희 고객님. 남편 분 차 남바 잘못 쓰셨죠? 조화가 안 되네.

불륜 낀 차 남바가 만인데.....네?

파티션 뒤에 쪼그리고 앉아 욕을 쏟아내기 직전의 진희.

조용하라고 손짓하는 모습에 며칠 전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다.

나미 (여유) 너 뭐 하니?

파티션 위로 얼굴을 내민 나미와 눈이 마주치자 얼음이 되는 진희.

35. 현재, 어느 주택가 오르막길 - 오후

햇빛 쨍쨍한 다세대 주택가의 오르막길을 오르는 나미와 진희.

진희는 웬지 저자세다.

진희 장미한테 말 안 할 거지?

나미 너 하는 거 봐서.

진희 아 그냥 혹시나 해서 알아보는 거라니깐.

나미 누가 뭐래?

여유 있는 미소의 나미. 코뿔다는 표정의 진희.

36. 현재, 어느 집 대문 - 오후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대문 앞.

벨을 누르고 진희에게 눈짓하면 투덜거리며 대문 열을 준비하는 진희.

안에서는 철희 엄마 나가보라는 신경질적인 할머니의 목소리 들린다.

금옥 (소리) 누구세요?

진희 (대문 열듯) 안녕하세요? 주님의 좋은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금옥 (소리) 교회 다니는데요?

나미 좀 상냥하게..

진희 (젠장, 하지만 상냥)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짜증스러운 진희의 표정. 잠시 후, 문 열리고 모습을 드러내는 금옥.

전혀 가꾸지 않은 생활에 찌든 모습의 금옥. 두 살 가량의 아이를 안고 있다.

이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밝은 모습으로 대하는 금옥.

금옥 어느 교회서 나오셨어요?

금옥의 변한 모습에 당황하는 나미와 진희.

이들의 모습에 좀 당황스런 금옥.

[Cut To - 거실]

좁은 거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집 특유의 어수선향이 가득하다.

진희는 좀 답답하다는 듯 고상을 떨고 있고, 차를 내오는 금옥.

금옥 집이 좀 좁지? 재개발 끝날때까지만 있을라고.

나미 좋은데 뭘. 반가워 금옥아.

금옥 그러게. 나미는 어쩔 더 어려졌나? 똑같네.

진희는....(웃음 터지며) 못 알아보겠다, 애.

진희 야 서 금옥. 조카까지 니가 봐주는 거야?

금옥 (조심스레) 시누가 만삭이라 잠깐 동안만.

(방에서 금옥을 부르는 시어머니) 잠깐만. 네~~~.

급히 일어나 방으로 달려가는 금옥.

한가하게 친구들이랑 노닥거린다는 편잔이 들린다.

뭐 저런 밋상 시업마가 다 있냐며 삐죽거리는 진희. 난감한 나미의 얼굴.

애써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다시 나오는 금옥.

어색하게 차 마시는 세 사람. 그리고 또 다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투덜거림.

가시 방석에 앉은 나미와 진희. 금옥도 열 받은 느낌이다.

상을 얹기라도 할 듯 티 테이블을 잡는 금옥. 주시하는 나미와 진희.

하지만 잡고 있을 뿐...

금옥 (후~) 애들아.
 나미 응?
 금옥 (애써 미소&난감) 그만...갈래?
 나미

37. 현재, 금옥의 집 앞 - 오후

내리막길을 툼툼툼 걸어 내려가는 나미와 진희. 표정 좋지 않다.

진희 서 치과집 무남독녀 금이야 옥이야 서금옥이가 어떻게 저러고 사냐?
 옛날 같았으면 당장 밥상 엮었을 년이. 니미 세월 참 무상해.
 나미 이제야 좀 너 같다.
 진희 장미년 보니까 자연스럽게 옥이 나오네.

키득거리는 두 사람. 이때 저 멀리서 이들을 부르며 뛰어오는 금옥.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다.

금옥 집안에 임산부 있어서 병문안 가기가 좀 그러네.
 (나미에게 봉투 건네며) 대신 춘화 좀 갖다 줘. 부탁할게.
 나미 잠깐이라도 니가 좀 들르자.
 금옥 미안하다. 내가 밖에서 일이라도 하면 니들 더 편하게 만날 텐데....
 춘화한테 따로 전화 할게. 우리 연락하고 지내자. 조심해서 가.

뭔가에 쫓기듯 급히 뛰어 올라가는 금옥.
 씩씩하게 바라보는 두 사람.

38. 현재, 나미의 집 - 밤

서재의 스탠드 불 아래서 금옥이 준 봉투를 보는 나미.
 꼬깃한 만 원짜리 다섯 장이 마치 금옥의 삶을 말해주는 듯 하다.
 돈을 꺼내고 남편이 썼던 봉투에서 십만원 지폐 열장을 넣는 나미.
 두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는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나가보는 나미.

[Cut To - 거실]

급히 방으로 들어가려는 미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을 자세히 보니 얼굴에 멍 자국이 보인다.

미진 밥 안 먹어.
 나미 너 왜그래?

미진 뭐?
나미 얼굴 봐. 멍 들었잖아.
미진 아 멍 아니야.
나미 왜 멍이 아니야? 어디서 이랬어?
미진 아 부딪쳤어.

신경질적으로 방에 들어가는 미진.
나미 따라 들어가려 하지만 문을 잠궜다.
문 열라는 나미의 말에 신경질만 부리는 미진.
나미,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

39. 현재, 방과 후 학교 인근 - 저녁

미진의 학교 앞. 우르르 하교 하는 학생들 사이로 미진의 모습 보인다.
슬그머니 등장하는 나미.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미진을 미행하기 시작한다.
어설픈 스파이 행세가 귀엽기 까지....
이상한 낯새를 느낀 미진이 되돌아보자 담벼락 뒤로 숨는 나미.
다시 고개를 내밀 때는 소녀 나미로 장면 전환.

40. 과거, 길거리 - 저녁

담벼락 뒤에서 누군가를 주시하는 소녀 나미.
나미의 시선으로 보이는 준호. 친구들과 헤어지고 홀로 어디론가 가는 모습. 멋지다.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포기했는지 다시 담벼락 뒤로 사라지는 나미의 얼굴.
그러나 이내 쫓아가기 시작한다.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쫓다가 멈추다가를 반복하는 나미.
성인 나미의 모습과 어딘가 닮아있다.
어느 정도 걸어가다가 음악 감상실로 들어가는 준호.
그의 모습을 보며 망설이는 소녀 나미의 얼굴.

41. 과거, 18번가 음악 감상실 - 저녁

시끄러운 락 음악과 담배연기로 꽉 찬 음악 감상실.
심각하게 음악 듣는 사람, 연애질에 바쁜 커플, 졸고 있는 사람 등 다양하다.
어정쩡하게 들어오는 나미. 준호 오빠의 위치를 발견하고 그 근처로 가서 앉는다.
편하게 앉아 자신만의 음악을 듣는 듯 헤드폰을 끼고 있는 모습이 멋지다.
이때 나미의 시야를 가리며 서는 종업원.

종업원 (대뜸) 중학생은 좀 그런데?

나미 (놀래라) ...중학생은 아닌데요?
 종업원 (의심) ...주문?
 나미 커피 주세요. 블랙.
 종업원 (빠히 보다가) 선불.

딱 봐도 학생 지갑에서 돈을 내는 나미. 짜식 다 안다는 눈빛의 종업원.

종업원 단속 뜨면 뒷문은 저쪽.

종업원이 가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나미. 하지만 오빠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다.
 한 참을 두리번거리다 '젠장' 포기할 때 뒤에서 나미에게 이어폰을 끼워주는 준호의 손.
 놀라서 돌아보는 나미. 살인미소 날리며 빠히 바라보는 준호. 라볶이의 한 장면이다.
 나미에게만 울려 퍼지는 리처드 샌더슨의 'reality'.
 뉘이 나가 어찌지 못하고 한 참을 준호만 바라보는 나미. 화들짝 이어폰을 빼다.
 다시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락 음악.

준호 너 나 봤지? 장미 친구.
 나미
 준호 이름 뭐야?
 나미 (사투리) 나민디요.
 준호 나미? 빙글빙글?
 나미 (젠장).....네.....
 준호 음악 좋아하나보다? 이런데 혼자 오고.
 나미(얼굴 시뻘개진).....
 준호 혈압 있니? 얼굴 터지겠다.
 나미 ...당뇨 조금.... (아 오늘 진짜).....

자신의 언행에 스스로 쪽팔린 나미.
 어정쩡하게 일어나 후문을 향해 종종 걸음 친다.

준호 어디가?
 나미 화장실요.....(강조)손 씻으러....

이런 나미의 모습을 귀엽다는 눈빛으로 보는 준호.
 그리고 한 편에서 하이에나 떼처럼 나미를 쳐다보는 소녀시대 리더와 몇몇 녀석들.

42. 과거, 음악다방 후문 골목 - 저녁

급히 문 열고 나오는 쪽팔린 나미. 잠시 담벼락에 기대어 자책의 지랄발광을 한다.
 이때 덜컥 열리는 문. 오빠인줄 알고 급히 아무렇지 않은 척 하다가 바라보면,
 그때 그 소녀시대 리더와 두 명의 톨마니다. 애써 모른 척 외면하는 나미.
 하지만 불량하게도 다가와 나미를 에워싸는 녀석들.

리더 어이. 작두 타는 년. 간만이다.
 나미누구세요?
 리더 (피식) 아 이런 쌍. 하 춘화가 애기 안하디? 여기 우리 구역이라고.
 뽕고뽕고를 넘겼으면 여긴 얼짹대지 말았어야지.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기지를 발휘해서 그때 그 욕을 폭발하는 나미.
 하지만 채 꽃피기도 전에 나미에게 따귀를 날리는 리더.
 너무 놀란 나미. 그대로 얼음이 된다.

리더 이 씨발년아. 다 들었어. 어디 시골서 올라온 촌년이 구라질이야.
 그때 씨발 진짤지 알고 밤에 화장실도 못 갔잖아.
 나미(완전 얼음).....
 리더 너네 이름 만들었더라. 씨니? 씨발. 중환 오빠가 저 췌다매?
 우리도 씨발 소녀시대 이름 촌스럽다고 해서 바꿀꺼야. 영어로. 뽕,클!
 꼬봉 야. 일단 돈 좀 빌려 줘봐. 언니들 뽕클 파마 좀 말게.
 나미돈 없어...
 리더 그렇지! 양탈이 빠지면 허전한 거지. (뒤지라는 손짓)

나미의 몸을 뒤지기 시작하는 꼬봉들.
 엉덩이며 가슴에 손을 놓자 수치심을 느끼는 나미.
 갑자기 상대 녀석의 따귀를 때린다. 병진 녀석들.
 단체로 나미를 구타하기 시작한다. 의외로 성깔 있는 나미.
 악다구니 물고 반항해보지만 쪽수에 밀리기 시작하고, 결국 두 녀석에게 제압당한다.

리더 어우 놀래라 쌍. 어디서 이런 미친년이.... 야! 눈 안깔아?
 나미 (씩씩거리며 계속 노려본다)
 리더 씨발. 눈 안 깔지? (비웃음) 너 지금 이 상황이 안 받아 들여지나 본데?
 어디서 백마탄 왕자라도 나타나서 구해줄 거 같.....
 준호 (소리) 야!

누가 말 끊었냐는 듯 짜증나게 바라보면 어느새 문 앞에 멋지게도 서 있는 준호.
 잠시 상황 파악을 하던 소녀시대 멤버. 나미를 내팽개치고 여유 있게 준호를 향해 다가간다.
 포켓에서 면도칼과 깎을 혼합하고 씹을 준비를 하는 리더. 하지만 씹지는 않는다.

리더 (여유) 등장이며 타이밍이며.... 너무 진부한 걸?
 잘생긴 오빠. 응? 내가 피해자 역할일 때 다시 오면 안 되나?
 준호 OO여상?
 리더 (피식) 그럼 뭐? 주판이라도 바꿔주시게?
 준호 (담배 멋지게 품고)너네 세다리 선배 중에 송정옥이라고 있지?
 얼굴 이십센치 찢어져서 너털너털 해 진 애. 자퇴하고 정신병원.
 리더
 준호 그거 이 오빠가 한 거야. 개 아직도 물 먹으면 뽕꾸난데서 흘러.
 리더(동요) 지랄하네...

준호 아닌 거 같지? (형광등 하나 집어들더니) 그거(면도칼 껌) 물고 일루 와봐.
오빠 지금 약해서 여자고 뭐고 없어. 일루 와봐. 이쁘게 해 줄게.

다가서며 멋지게 형광등 깨는 준호.
하나도 겁 안 난다는 듯 비웃고 있는 리더. 표정과 달리 뒷걸음 치고 있다.
녀석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멋진 자세 유지하는 준호.
나미의 눈에 이보다 더 멋질 수 없다.
하지만 녀석들이 안 보이자 손 떨고 다리 풀리는 준호. 살짝 스타일 구긴다.

준호 (긴장) 어우~.. 괜찮아?
나미 네....
준호 요새 애들 진짜 무서워. 얼른 저 앞문으로 토끼자.
나미 (뛰냐).....

나미의 손을 잡고 허겁지겁 문으로 들어가는 준호.

43. 과거, 집으로 가는 길거리 - 밤

시위대며 전경들이 즐비하게 앉아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80년대 풍경의 길거리.
나란히 걷는 준호와 나미. 부상당한 전경, 학생들이 각자 상처에 붓대를 감는 것을 본다.

준호 난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한다. 우린 싸울 때 뭔가 들고 싸우잖아?
나미 ...형광등요?..
준호 아니.. 저런 곤봉이든 방패든..
나미 아...
준호 그런 것들 대신 악기를 들고 싸우면 어떨까? 그냥.. 음악으로 싸우는 거야.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승패 가리는 건 가능한 거니까.
최소한.. 피는 안 봐도 되잖아. 헬멧 벗으면 다 친구들인데..
나미 (애.. 멋지다) 저도 음악 좋아해요.
준호 (전경들 보며) 군대에 간다면 군악대로 지원하고 싶어.. 난 무기 체질이 아니거든.
나미 (실망) 군대.. 가세요?
준호 나 먼제야. 삼대독자.
나미 아 네...

그래도 다행이라는 미소 번지는 나미.
이때 마치 키스라도 할 듯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나미를 뻔히 바라보는 준호.
나미의 컷볼 뒤 머리를 쓰다듬는다. 심장 터지기 직전의 소녀 나미.
하지만 나미의 머리를 뺨을 듯 당기는 준호.

준호 껌 붙었다.
나미 (아 췌장).....

준호 아까 개들이랑 똥굴 때 붙었나보네. (당긴다)
 나미 아...아...
 준호 (안되겠네) 엄청 붙었네. 집에 아세톤 있지? 아니면 잘라내야겠다.
 나미 (얼굴 빨개진)...네....
 준호 (웃으며) 또 당뇨 왔니?
 나미 아니요. 저기 다 왔어요. 우리 집. 저 짹....
 준호 (피식) 그래 들어가. 없으면 킬라 뿌려봐. 또 보자.

멋지게 미소 날리고 멋지게 돌아가는 준호.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나미.

준호 (다시 돌아보며) 아, 그리고 나중에 개네들 또 만나면,
 나랑 사귀다고 해! (미소) 미친놈이라고도 하고.

준호, 돌아가고. 나미, 정신 줄 놔다. 머리는 뭇 저서....

44. 과거, 나미의 집 앞 - 밤

위 표정과 달리 당황한 표정으로 집 앞에 도착한 나미.
 소란스러운 소리에 보면 집 앞에 짹 깔린 경찰들.
 형사로 보이는 몇몇에게 사정하는 엄마. 그 옆에서 뻑뻑 담배만 피고 있는 아빠.

나미 그제 아니라니깐 그러시네. 우리 종기는 암 것도 몰라요.
 그 역시 같은 년이 꼬들여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형사 (유들) 아 그러니깐 우리 어머니는 아드님 보는데로 알른 우리한테 알려 줘요.
 이 정도 빠라면 바로 남산 간다니깐? 거기 들어가면 종기 성해서 못 나와.

이때 언제 나타났는지 뒤에서 형사의 빠를 낚아채는 할머니.

할머니 (웃으며) 야이 씹새끼야. 밥 먹고 가.
 형사 (깜짝) 아~ 진짜 깜짝이야.

전단지 뺏으려는 형사, 안 뺏기는 할머니. '나 잡아 봐라' 까지 한다.

나미 (버럭) 엄마는 들어가 있어! 줌!
 (형사에게 애원조) 우리 애 암 것도 모른다니까요. 네?

전단지를 포기하고 말이 안 통한다는 듯 철수하는 형사들과 경찰들.

나미 (탄식) 어이구. 어디서 미친년을 만나서 하도 앓던 노동운동 한답시고
 집안을 말아먹어. 말아먹길. 어이구 이제 좀 살만 하니까.....

엄마의 탄식 이어지고 신나서 나미를 부르는 할머니.
 할머니가 건네는 전단지들 본다.
 전두환 정권을 규탄하고 공산당을 추앙하는 내용의 성명서.
 그 아래 대표 성명에 오빠의 이름 '임 중기'가 적혀 있다.
 말없이 뻑뻑 담배만 피고 있는 나미 父.

45. 과거, 길거리 - 오후

정권 타도의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 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전경들.
 그 앞을 걸어가는 씨니 멤버들. 표정의 의미심장하다.

장미 휴교라 땡큐긴 한데 (시위대 보며) 작작들 좀 하지 거...
 수지는 어디갔대냐? 단체행동에 기본이 안 돼있어.
 진희 술술 마주칠 때가 됐는데 말이지. 쌍년들 안 보이네.
 나미 난 괜찮다니깐.
 춘화 넌 가만있어. 우리 중 한 명 건드리는 거는 우리 전체를 건드리는 거야.
 금옥 야. 맨날 이빨만 까지 말고 한판 제대로 좀 뜨자. 응?

길거리엔 시위대와 진압 전경들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일촉즉발의 기운.
 이때 저 앞에서 건들거리며 지나가던 소녀시대 멤버들과 눈이 마주치는 씨니 멤버들.
 멈칫 하는 소녀시대. 대뜸 앞으로 나서는 진희.

진희 야 이 씨발년들아. 피를 보기에 좋은 날씨구나. 미친.....

진희의 욕이 채 끝나기도 전에 뛰어 나가는 춘화.
 그리고 우르르 뛰어나가는 나머지 멤버들. 이들의 돌진에 맞서 뛰어오는 소녀시대들.
 마치 시험시작의 신호와 같이 최류탄 터지고 격돌하는 시위대와 전경들.
 그리고 그들의 격돌과 동시에 한판 뜨는 씨니와 소녀시대.
 어느 레코드 가게에서 Joy의 'touch by touch' 흘러나오고 음악에 맞춰 패싸움이 시작된다.
 진압 봉을 분실한 어떤 전경, 의아해 하다 시위대에게 덮쳐지고
 그 진압 봉을 들고 녀석들과 싸우는 다구발의 달인 금옥. 날아다닌다.
 뜯기고 차이는 소녀시대들. 나미도 한 몫 제대로 거든다.
 흐르는 음악 탓에 유쾌한 느낌이 나는 패싸움.

46. 과거, 나미의 집 앞 - 밤

집으로 향하는 물꼬이 말이 아닌 나미.
 이때 집 앞 골목에서 담벼락에 기대어 멋지게 담배피고 있는 20대 여자와 눈이 마주친다.
 흘깃 보며 지나가는 나미.

여자 (담배 뿜으며) 뭘 끌어봐?

흠칫 눈을 피하는 나미. 그러나 무슨 강이 생겼는지 멈춘다.

나미 너 끌어본다.

어이없이 웃으며 담배 집어던지자 도망치듯 급히 자리를 옮기는 나미.
담을 돌면 집 문에서 엄마와 실랑이를 하는 오빠를 발견. 멈춘다.

종기 글썄 암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쇼. 내가 다 알아서 할것잉게.

나미母 종기야. 그냥 엄마랑 경찰서 같이 가자. 내가 애기 다 해놨다니깐.
착한 우리 종기가 나쁜년 껌에 꼬여서..

종기 (버럭) 누가 나쁜년 껌에 꼬이긴 꼬여?!!
(진정) 얼른 들어가쇼. 좀 잠잠해지면 다시 올텐게.

억지로 엄마를 밀고 문을 닫는 오빠.

주변을 살피며 급히 오다가 나미와 마주친다.

잠깐 놀라다가 나미임을 확인하고 다가오는 오빠.

종기 나 없는 동안 할머니 잘 돌봐드려라. 공부 열심히 하고.

나미 (걱정) 어디 가는데?

종기 (비장) 이 오빠는 민주주의와 이 땅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목숨 바치기로 했다.
나중이라도 절대 독재 정권과 부르주아 사상에 물들면 안 된다.

혼자 비장함에 심취해 자리를 뜨는 오빠.

아직도 담벼락에 기대고 있는 여자에게 다가간다.

담뱃불을 붙여주는, 어쩐지 여자에게는 찢찢매는 오빠의 모습.

여자 임 종기. 민주 열사 집안이 사상 저래서 되겠어?

오빠 (비굴) 노인네가 뭘 몰라서 그래. 배운 게 없어서.

힐끗 나미 한 번 노려보더니 자리를 뜨는 여자.

그 뒤를 줄줄 쫓아가는 오빠.

47. 현재, 법정 - 오후

판결이 진행 중인 재판정. 방청석에 앉아 있는 나미.

피고인석엔 생활에 지친 표정 가득한 중년의 종기가 앉아 있다.

판사의 판결문 낭독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고인 방향을 바라보는 종기.

원고 대표인 외국인 근로자와 방청석의 비슷한 외국인 십여 명이 종기를 노려본다.

눈을 피하는 종기. 이런 모습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방청석의 나미.

판사 피고 임종기는 원고측 대표 하싼 이하 여덟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장기간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고용일로 부터 지불할 의지가 없었으므로
그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초범인데다 이미 합의를 하였고
깊이 반성함을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선고하는 재판장의 망치. 지친 종기의 얼굴.

[Cut To - 재판정 출구]

판결이 끝나고 재판정을 나가는 사람들.
힘없이 걸어 나가는 종기 곁으로 다가오는 나미.

나미 오빠.
종기 (돌아보며 쓴 웃음) 엄마는?
나미 집에. 내가 전화 드렸어..... 괜찮아?
종기 (한 숨) 인생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그치?
나미

이때 출구에서 마주치는 원고측 대표 하싼. 표정 냉담하다.
애써 웃음 지으며 악수를 건네는 종기.

종기 하싼!
하싼 (의아).....
종기 (애써 웃음) 미안하다.
하싼 (뻔히 바라보다) 개새끼야.

무섭게 노려보고 가버리는 하싼과 근로자들. 악수를 하기 위해 내민 손이 부끄러운 종기.
얼굴에 가지지 않은 짧은 미소가 그를 더 비굴하게 만든다.

48. 현재, 춘화의 병실 - 오후

햇빛 좋은 창가에 앉아있는 춘화.
자신만의 화풍으로 그녀를 그리고 있는 나미.

춘화 금옥이는 무슨 백 만 원씩이나 넣었데?
나미 (몰입하며) 넣을만 하니까 넣었겠지. 친구잖아.
춘화 웃은 만걸로 그릴 꺼지?
나미 움직이지 말아봐. 간만에 하니까 잘 안되네.
춘화 임 나미.
나미 네에~.
춘화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되고 싶은 거나?

나미 이 나이에 되고 싶은게 있겠어? 그냥 사는 거지.
 춘화 그냥 살지 마.
 나미
 춘화 내 몫까지 잘 살다 와.
 나미 움직이지 말랬지.

웃는 춘화. 이때 뒤에서 노크하는 소리. 썬글래스 끼고 빨쭙하게 서 있는 진희다.
 썬글래스 내리면 퐁퐁 부은 눈.

진희 춘화야.... (나미 보며 울먹) 나미야. 이 씹새끼 바람뽀다.
 나미/춘화
 진희 이 새끼 어떡하니? 두 집 살림 한지가 일 년도 넘었네.

이때 뒤에서 귀신처럼 등장하는 장미. 손에는 바나나 들려있다.

장미 누가?
 진희 (화들짝)!!!

[Cut To - 시간경과]

이번엔 진희가 침대에 누워있고 각자 편하게 앉아있는 그녀들.
 좀 진정된 진희. 한 숨 쉰다.

장미 어찌시려고?
 진희 미안하다 춘화야. 25년 만에 만나서 이딴 소리나 해대고.
 춘화 친구끼리...아 이혼 해버려.
 진희 누구 좋으라고... (결심) 일단 맞바람부터 좀 피야지.
 같이 필 사람? 나미? 장미?
 장미 (수줍) 나는 좀 멍기긴 멍기는데.... 너 그러면 나중에 위자로 못 쟁기지 않나?
 진희 아 또 그건 그래.
 (억울) 아 이 개새끼. 이거 어떻게 작살내지?
 나미 (비장) 찾아가서 깡판 한 번 쳐줘?
 진희 ...?....
 나미 우리 중에 하나 건드리는 건 전부 건드리는 거잖아.

대견하다는 듯 나미를 바라보는 춘화

장미 그런 거지.
 춘화 야. 말만 해. 어떻게? 확 뿐질러줘? (바나나 분지른다)
 나 날 받아 논 여자야. 응? 진희?

춘화의 오버 액션에 기분이 풀어진 진희.

나미도 장미도 바나나 들고 가세한다.

나미 그렇게 하면 안 아파. (시범)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이렇게 해야....
진희 남의 남편 꼬추 가지고 왜 이 지랄들이야?
장미 이봐, 이봐, 조선녀들은 꼭 막판에 서방편들어요.

확자지결한 병실. 소녀 같은 내 사람.

49. 현재, 학원가 뒷골목 - 밤

자녀들을 기다리는 학부형들의 차가 즐비하게 늘어 선 학원 앞.
차를 몰고 정차할 곳을 찾는 나미.
학원 입구를 쳐다보며 미진에게 전화를 해 보지만 받지 않는다.
뒤에서 경적 울리는 차를 피해 골목으로 들어서는 나미.
다시 돌려 나가려는데 나미의 시선에 들어오는 한 무리의 여학생들.
골목 어두운 곳에서 한 여학생을 둘러싸서 위협하고 있다.
돈을 뺏고 정강이를 차고 돌아가며 린치 하는 녀석들.
마치 재미있는 놀이라도 하는 듯 시시덕거리며 따귀를 때리는 녀석들.
걸 그룹의 안무를 따라하듯 구타하는....
맞는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는 나미. 딸 미진이다.
놀라며 급히 차에서 내리는 나미. '야!' 소리 지르며 이들에게 뛰어간다.
갑작스레 문을 열어 지나가는 차가 사고 날 뻔하고 욕하는 그 남자 운전자.
그러거나 말거나 같이 욕하다 뛰어가는 나미. (모성에 강조)
똥 났었다는 표정으로 자리를 피하는 녀석들.
가면서 미진의 싸대기 한번 더 날리는 한 녀석. 미진을 장난감 취급한다.
급히 미진을 감싸는 나미. 딸임을 다시 확인하고 녀석들에게 소리친다.

나미 야! 니들 왜 그래?! 이리 와봐! 야!
일진1 (뒤돌며) 뭐 이 씨발녀야!!

나미에게 달려들 듯 위협하는 한 녀석. 나머지 녀석들이 말리자 하는 수 없다는 듯
자리를 뜨지만 여차하면 다시 달려들 기세다. 겁나는 상황. 놀라서 미진을 확인한다.
고개 숙이고 자리를 피하는 미진. 쫓아가는 나미.

나미 (홍분) 괜찮아? 재들 뭐야? 너한테 왜 그래?
미진 (버럭) 아 왜 꺼들고 난리야?!
나미 무슨 일이나고?! 재들 뭔데?
미진 (울먹) 재들이 뭐면?! 엄마가 뭐 어쩔건데? 뭐 죽여주기라도 할 거야?!
 (진정) 그냥 가 좀 빨리.

급히 자리를 떠버리는 미진. 속상한 나미, 일진들이 사라진 곳을 무섭게 노려본다.

50. 현재, 어느 공터 - 오후

한 줄기 먼지바람이 지나가는 어느 공터. 서부영화 필이다.
선글라스 끼고 누군가를 기다리며 서 있는 장미, 이때 장미를 부르는 진희.

진희 (소리) 어이. 보험아줌마!

보면 상당히 어리게 입고 온 진희, 어딘가 좀 안 어울린다.

장미 얼레? 싸모님이 이 누추한 곳엔 어쩔 일로 오셨을까?

진희 피를 보기 좋은 날씨가구나~.

장미 의상이 좀 그러네.

진희 시끄러. 예전 방식대로 한다.

장미 뭘?

진희 기선 제압을 하겠다는 거지. 내가.

장미 (흐뭇한 어깨동무) 그래 이년아. 욕쟁이는 욕을 먹고 살아야 되는 법이야.
(가슴 찌르며) 근데 너 이거. 한 거지. 엉? 했구만.

진희 몰라 이 년아. 근데 애는 왜 안온테니? 여기 맞아?

이때 누군가를 발견하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장미와 진희.

미진의 교복을 입고 갈래머리를 한 나미다. 자신도 쑥스러운 듯 어정쩡하게 서 있다.

진희미친년.....

나미 (수줍) 개들이 나 알아보니까....

장미 (품) 야. 어머 애 어떡하니? 호호호호. (정색) 남편 완전 좋아하겠다.

춘화 (소리) 우하하하. 야. 임 나미!

누군가 심하게 웃는 소리에 돌아보면 잘 차려 입고 나온 춘화다.

춘화 하하하. 완전 재 고빠리다. 너 그냥 그렇게 입고 다녀라. 아하하하.....

나미 (장미 바라보면)

장미 심심하대잖아. 그리고 이런 날 리더가 빠질 수 있냐?

웃음바다가 된 공터. 민망하지만 자신도 이 상황이 웃기는 나미.

나이 든 고빠리와 뺨 하나씩 든 아줌마들이 맛먹으며 웃는 이상한 그림.

이때 저 멀리서 절령하게 지나가는 그때 그 일진들을 발견하는 나미.

나미 야. 재들. 재들.

진희 재들이야? 오늘 간만에 스트레스 좀 풀어 보자. 갱 값은 내가 쓸게 맘껏 즐겨.

나미 춘화는 그냥 보고만 있어.

춘화암 환자가 못 싸울 거란 편견을 버려.

장미오오~~

51. 현재, 공터의 다른 곳 - 오후

침을 뱉으며 불량하게도 흡연을 즐기는 일진들.
이때 이들을 부르는 괴성.

진희 (소리) 어이 씨발년들! 금연구역이잖아!!

일진들, 일제히 돌아보면 슬로우 모션으로 멋지게도 다가오는 아줌마들.
나미를 필두로 전의에 불타는 일행들. 무기로는 명품 뺨 하나씩 들고 있다. 당황하는 일진들.
이들이 진열을 갖추기도 전에 다짜고짜 뺨을 휘두르며 공격을 하는 그녀들.
아줌마들과 고빠리들이 엉켜서 개싸움을 하는 웃지 못 할 그림이 연출된다.
춘화의 끝로에 뺨에 붙은 자물쇠 장식이 한 일진 녀석의 대가리를 터뜨리며, 피날레를 장식하는
오후의 개싸움.

52. 현재, 공터 - 오후

일진 여학생을 태우고 떠나는 응급차. 뺨차 몇 대가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고 있다.
어수선한 현장을 정리하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한 형사. 비웃는다.

형사 아니 세차하러 나왔다가 뺨차 모자란데서....이상한 사람들 같지는 않고.....
한 여자는 좀 이상한거 같애. (폼) 아줌마가 교복 입고 있더라고.
몰라. (키득) 남편이 시켰나보지.
(차에 타며) 지구대 실어다만 주고 바로 갈게요. 네~.

차에 타는 형사의 동선을 쫓는 카메라.
봉고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있는 네 명의 아줌마. 물결이 말이 아니다.

53. 현재, 차 안 - 오후

앞자리엔 두 명의 경찰. 뒷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네 여인.
슬쩍 춘화의 가방을 보며 입을 여는 장미.

장미 명품 뺨이 좋긴 좋다 애. 한~방에 대가리가 터지네.

키득거리며 웃는 네 사람. 한심하다는 듯 돌아보는 경찰.

경찰 소풍가세요?

장미 경찰 아저씨. 이런 건 보험처리 안되죠?

경찰 아니 이게 어떻게 보험이 됩니까? 폭력사건인데.

장미 일반 상해는 합의금도 다 나오는 상품 있는데....(슬쩍) 보험 좀 드셨어요?

진희 야. 넌 이 상황에서도 보험 팔 생각이 나냐?
 장미 아 나 이번 달도 공치면 완전 삼진이야. 니가 좀 들어주던가? 돈도 많은 년이.
 경찰 조용히 좀 가시죠.
 춘화 (아랑곳 않고) 나미 애 날라다니는 거 봤니? 오늘 손맛 좀 제대로 보더라.
 나미 복수지. 복수. 정의사회구현.
 춘화 니 애들은 손봐줄 애들 없다니? 탄력 받은 김에 한 바퀴 돌자.
 진희 좋네! 유니폼 맞추자 이왕 하는 거.
 나미 (진지) 교복이 생각보다 편해.
 장미 (신났다) 호호호!!! 전단지 붙일까? 걍 값만 받고 일진 잡아드립니다.
 돌아온 씨니! (다들 웃는다)
 경찰 아 줌!!!

경찰의 짜증에 조용한 네 여인. 라디오 켜는 경찰.
 침묵 이어지는 가운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보니 앤의 'sunny'
 뭔가 사연이 있는 곡인 듯 서로 쳐다보는 그녀들.

장미 경찰 아저씨.
 경찰 (귀찮은) 왜요?
 장미 보름 좀 높입시다.

짜증스레 볼륨을 높이는 경찰.
 잠시 음악을 듣던 네 여인. 잘 아는 곡 인 듯 몸이 들썩들썩한다.
 이들만의 안무가 있는 곡인 듯 대충 동작들을 척척 맞추는 네 여인.
 '짝' 박수를 치는 안무 이어지고....

54. 과거, 학교 미술실 - 오후

텅 빈 미술실. 휴대용 오디오에 돌아가는 테이프에서 위 음악 이어진다.
 음악에 맞춰 춤추는 일곱 소녀들. 위의 그 안무가 구체적으로 보여 진다.
 걸 그룹이라고 하기엔 좀 어설피지만 나름 귀여운 녀석들.
 뒷줄에 있는 나미의 동작이 자꾸만 틀리고 민망한지 막춤으로 대체하며 웃는 나미.
 하지만 수지의 눈에는 영 못마땅하게 보인다.
 결국 나미로 인해 안무가 중단되고 음악을 끄는 춘화.

춘화 (귀엽다는 듯 웃으며) 임 나미. 완전 몸치 구만.
 이거 어디 축제 때 무대나 올라가겠어?
 나미 (피식) 아파 안무가 좀 몸에 안 붙는 구만?
 수지 (버럭) 그럼 욕감떨지 말고 빠지던가 씨발.
 병신 같은 게 무슨 춤춘다고 켜서...

갑작스런 수지의 짜증에 놀라는 일행들.

춘화 야! 정 수지. 말이 좀 심하잖아.
 수지 (다가가며) 야 너 애 좋아하냐? 응? 레즈비언?
 춘화 (딱 돈다) 뭐?
 수지 여자끼리는 어떻게 하나?
 춘화 (때릴 듯) 이런 씨발...

말리는 녀석들. 서로 노려보는 춘화와 수지. 난감한 나미.

수지 씨니건 씨발이건 니들끼리 해라. 줄라 유치해서 못해먹겠다.

나미 한 번 노려보고 나가버리는 수지.
 다시 빨갳게 달아오르는 나미의 얼굴. 열 받았다.

55. 과거, 수지의 집 앞 - 해질녘

좀 많이 사는 수지의 집 외관. 현관을 열고 나오다 좀 당황하는 수지의 얼굴.
 빨갳게 상기된 나미가 문 앞에 서 있다.

수지 (냉담) 뭐야?
 나미 (홍분) 니가 나 싫어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우리 전체를 등지는 것도 용납할 수 없어.
 수지 (어이없다) 우리?
 나미 그래 우리.
 수지 너 많이 컸다. 언제부터 너랑 나랑 우리였냐?
 나미 니가 날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알고 싶어.
 수지 이유도 없고 알 것도 없고 그냥 니가 알짱대는게 제수 없어. 꺼져라.

나미, 들어가려는 수지를 잡으며

나미 이대로는 못가.
 수지 (잡은 팔 보며) 안 놓지?

버티는 나미. 녀석의 따귀를 때리려 팔을 휘두르는 수지.
 얼굴 바로 직전에 멈추는 수지의 손.
 여전히 팔은 꼭 붙들고 있지만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는 나미의 얼굴이 귀엽다.
 이때 집 안에서 나오는 수지의 엄마. 딱 봐도 젊은 외모가 새엄마임을 알 수 있다.
 말투는 전라도 말씨.

엄마 친구 왔니?
 나미 (대뜸 공손) 안녕하세요?
 엄마 왜 안 들어와. 들어와. 밥 먹었니?

수지 신경 꺼라.
 엄마 (반가운) 엄마 있을 때 친구 한 번도 안 데려오더니. 뭐 먹고 가.
 나미 (난감) 아... 밥 먹었는디요...
 수지 (폭발 직전) 들어가라고.
 엄마 데리고 들어와. 엄마가 맛있는 거...
 수지 (버럭) 누가 엄마야 씨발년아!

놀라는 나미. 새엄마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듯 당황의 정도가 덜 하다.
 나미를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수지.
 들만 남은 현관의 어색함이 극에 다다를 무렵 옷을 챙겨 입고 나오는 수지.
 성큼성큼 나가버리면 어정쩡하게 새엄마에게 인사하고 따라가는 나미.

56. 과거, 어느 포장마차 - 밤

한 잔 시원하게 꺾는 수지. 제법 마셔본 느낌이다.
 단골인 듯 오뎅 안주 가져다주며 단속 뜨면 얼른 튀라는 아줌마.
 아까 따지러 갔을 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수지의 눈치만 보는 나미.
 어렵게 말을 꺼낸다.

나미 (버럭) 너네 새 엄마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나까지 싫어하는 건 부조리한 일이야...
 (오뎅 하나 집으며) 그건 지역감정을 조장해서 민주주의 정신...
 수지 (술잔 '딱' 내려놓으며) 야!
 나미 (오뎅 내려놓는다)....

나미의 빈 잔에 술을 따라주는 수지.
 말뚱말뚱 쳐다만 보는 나미.

수지 (짜증) 너 술도 못 마시냐?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 잔 들이키는 나미. 씨서 죽는 다는 표정이 귀엽다.
 나미가 잔을 내려놓으면 어느덧 세병이 비워진 상태로 장면전환.
 멀쩡하게 보이려 애 쓰지만 눈이 풀린 수지, 연신 젓가락을 떨어뜨린다.
 한편 자작까지 하며 좀 수다스러운 나미. 사투리가 걸쭉하다.

나미 나도 힘들어. 솔직히 우리 오빠, 민주투사. 언제 잡혀 들어갈지 몰라.
 울 할무니, 나보고 언니래. 응? 근데 내가 왜 그래도 춤을 추냐? (상을 탁탁 치며)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지. 솔직히 우리가. 왜 우리가 중요하냐? 야. 수지.
 정 수지. 들어? 듣고는 계시나요? (계속 얘기하라는 수지의 손짓) 후~.
 아줌마. 꼬막은 없죠? 꼬막? 지금 꼬막 칠인데.

수지 (혀 살짝 꼬인) 그래도 난 너 싫어.

나미 (후~) 그래도 난 너 좋아.

수지왜?
 나미 ...너 예쁘잖아.
 수지
 나미 너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충격 받았다. 나 전에 학교에서 제일 예뻐거든?
 근데, 서울 오니까....(울먹) 다 예쁜거야. 애들이.
 근데! 너는 걔들 중에서도...(울먹울먹) 너무 예뻐서....

마침내 이유 없는 울음을 터뜨리는 나미. 매우 취했다.
 뺨히 바라보던 수지. 영아들이 또래가 울면 따라 울 듯 울기 시작한다.
 마침내 서로 부둥켜안고 우는 어이없는 상황. 아줌마도 손님들도 비웃는다.

나미 (통곡)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
 수지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미 아니야. 내가 미안해. 용서해줘. 널 위해서.... (통곡) 서울사람 될게!

휘청거리며 우정을 맹세하는 두 명의 만취한 고삐리들.
 바보 같은 놈 하나는 괜히 따라 울고 있다.
 기둥에 걸린 라디오. 이종환의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음악이 흐른다.

57. 현재, 병원 복도 - 오후

한 손에는 포장한 그림을 들고 전화 통화를 하며 복도를 걸어가는 성인 나미.
 이제는 친구 찾는 일에 더 적극적이다. 기분 좋은 발걸음.

나미 복화는 미스코리아 됐대니? 빨리 보고 싶다.
 아니 난 춘화 좀 보고 갈라고. 뭐 좀 전해주고.
 내일 춘화도 데려갈까? 물어볼게. 응.

기분 좋게 춘화의 병실 앞에 다다르는 나미.
 하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에 놀란다.
 항암제를 맞은 듯 고통에 몸부림치는 춘화.
 간호사 두 명이 그녀를 붙잡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인 듯 아이처럼 울고 헛소리까지 하는 모습.
 나미와 눈이 마주치면 살려달라는 듯 공포에 질린 춘화.
 그런 그녀를 보며 울컥 눈물이 쏟아지는 나미.

58. 현재, 변두리 과부촌 - 밤

조잡한 간판이 가득한 변두리의 과부촌.
 건너편에서 난감한 표정의 나미와 장미가 어느 한 가게를 바라보고 있다.

장미 엄마가 미용실 안 넘기려고 사채를 많이 썼나봐.
그거 갚는다고 학교도 그만 두고 (안타까운) 술집으로 빠졌나보지.
돌고 돌아서 섬까지 갔다 오고 여기까지 왔데..... 약도 했다던데.....

나미 애는?

장미 시설 같은데 있다고 하던데.... (속상한) 아우~ 나쁜년.
(울먹) 미스코리아는 안됐어도... 이게 뭐니.

이때 가게 문을 열고 나오는 복희. 물꼬이 말이 아니다.
담배 하나 물고 조그려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모습이 마치 반 실성한
행려마저 연상시킨다. 그 뒤에서 문 열고 나오던 주인아줌마.
복희를 보자 화를 낸다.

주인 아이고~ 이 미친년이 없는 손님도 내쫓을라고...
안에 들어가서 피든지 좀 이 정신 빠진년아.

복희 (피식) 아~ 바람 좀 썰라고. 들어갈게. 미안!

이런 모습이 일상인 듯 대수롭지 않게 쓴 웃음을 짓는 복희.
파도 많은 그녀의 삶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투덜거리며 들어가는 아줌마.
이 충격적인 모습을 지켜보는 나미와 장미. 장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다.

장미 나미야. 그냥 가자. 응? 나 재 못 만나겠다.

나미 친구가 왜 친구겠어.

의외로 침착한 나미. 복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간다.
고개 숙이고 담배를 피던 복희 앞에 서는 나미.

나미 복희야.

올려다보는 복희,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얼굴.

59. 현재, 과부촌 내부 - 밤

아직 영업전 가게 내부. 종이컵 하나씩 놓고 마주 앉은 세 사람.
약 중독자가 금단현상을 일으키듯 다 마신 종이컵의 커피를 계속 빨아대는 복희.
약간 흥분 상태 같다. 그녀에게 자신의 커피를 따라주는 침착한 나미.
장미는 뭔가 불편한 표정.

복희 미안. 내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마시고) 춘화 보러 가자. 지금 갈까? 나 조퇴하면 돼.
학교 때도 나 조퇴 많이 했잖아. (주방을 향해) 언니~!나 오늘 하루 설겜요!

사장 (소리) 헛소리 하지 말고 화장이나 빨리 해!

복희 (실실) 오늘은 힘들겠다. 내일 가자 내일. 언니 미안~~!!

이런 복희의 모습을 불안하게 보는 장미.

복희 장미는 쌍꺼풀 너~무 예쁘다. 꿈을 이뤘구나. 축하해.
나미는 완전 애기네. 애기 피부. 교복 입혀놓으면 고등학생 하겠다. 호호호.

이때 신경질적으로 나타나는 아까 그 사장 아줌마.

사장 (대뜸) 야 이 식충이 같은 년아. 장사도 안 돼서 죽겠구먼
남자는 못 태려오는게 (슬쩍 나미, 장미 쳐다보며) 영업전에 채수 없게....
할 일 없으면 화장실 가서 니 술 처먹고 오바이트 한 자국이나 닦아.
(주방을 향해 가다가) 얼른!

복희 (일어서며) 미안. 평소에는 되게 좋아. 사람이.
잠깐 커피 하고 있어. 금방 올게. 금방~, 언니 미안~.

자존심은 이미 없어진 듯 비굴하게 웃으며 사장을 따라 가는 복희. 무안한 장미.
이때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나미.

나미 (버럭) 아줌마!

사장/복희(돌아본다)...

나미 술 줘요. 여기서 제일 비싼걸로.

사장 (짜증) 예?

나미 술. 제일 비싼 거. 바가지 딱딱 씌워서 달라고.
안주도 제일 비싼걸로 주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는 나미. '사랑하는 아내에게'라고 적힌 그 봉투다.
십만원짜리 열장 정도 꺼내서 멋지게 테이블에 펼치며,

나미 여기 이 아가씨(복희) 접대비까지 넌게 아줌마가 서빙해요.
현금으로. 백 만원이면 돼요? 모자라면 더 주고.
(돈 내밀며) 여기.

너무도 당당한 멋쟁이 나미.

잠시 나미를 쳐다보던 사장, 살짝 기죽으며 나미가 내민 돈을 받는다.

사장 (복희에게) 앉아있어.

주방으로 가는 사장. 나미를 대단하다는 듯 보며 앉는 복희.

복희 오우~ 임 나미. 완전 멋있다. 화끈하네.
(주방을 향해) 언니 가짜 말고 진짜로 가져와~!!

사장 (소리) 아 알았어!

뒤가 좋은지 나미를 보며 연신 웃는 복희.

나미 복희야. 너 이 일 그만 하자.

복희 왜? 난 괜찮은데.

나미 내가 도와줄게. 딴 일 찾아보자. 응?

복희 아~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맞다) 나 머리는 좀 말 줄 안다.

우리 집 미용실 했잖아. 명동에서 되게 크게.

나미 그래. 미용실이건 뭐건 딴 거 하자. 너 딸 있지? 중3짜리? 같이 살아야지?

딸 애기가 나오자 표정 변하는 복희, 손을 심하게 떨며 담배를 문다.

복희 (비소) 방 한 칸 없이 여기서 먹고 자는 년이 무슨 낮짜리로 자식을 테려 오냐.

나미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복희 우리 현정이 (후~) 눈이 어디에 붙었는지.. 코는 어디에 붙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 (빠히 바라보다) 도와줘봤자 또 기어들어올 년이야. 내가.

나 남은 평생 이 바닥 못 벗어난다. 그냥 오늘은 술이나 사 줘.

할 말을 잃은 나미.

복희 춘화는 좋겠다. 이 험한 인생 빨리 졸업해서.

허공에 가득한 담배 연기.

60. 현재, 춘화의 병실 - 밤

침대 옆에 서서 고통에 잠든 춘화를 바라보는 나미. 복잡한 표정이다.

뒤돌아 가려는데 힘없이 나미를 부르는 춘화.

춘화 나미야.

나미안 잤어?

춘화 왜 (빙글빙글 훑네) 그제~ 바라만 보고 있어?

나미 (피식)

춘화 일루 와. 좀 만 있다가 가.

잠시 바라보는 나미.

춘화, 옆에 누우라는 듯 자리 만들어주면 올라가 눕는다.

연인, 혹은 소녀 같이 편안하게 누워있는 두 사람.

나미 춘화야.

춘화 말씀하세요.

나미 고마워.

춘화 뭘?
 나미 나 꽤 오랫동안 엄마, 집사람으로만 살았거든.
 인간 임 나미. 아득한 기억의 지편이었는데....
 나도 역사가 있는, 적어도 내 인생은 주인공이더라고.
 춘화 너는 얼굴이 주인공 얼굴이야.

바라보며 웃는 두 여인. 그리고 춘화의 한 숨.

춘화 수지도 주인공 얼굴이었는데...
 나미 (착잡).....
 춘화 잘 있을까?
 나미 꼭 찾아줄게.

머리맡의 봉투 하나를 건네는 춘화.

나미 뭘데?
 춘화 집에 가서 봐.

61. 현재, 나미의 집 거실 - 밤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TV를 보는 나미.
 화면 속에서는 고교 시절 VHS로 촬영한 씨니 멤버들의 춤 연습 장면이 펼쳐진다.
 열심히 추는 춘화, 연습하다 말고 가짜 속눈썹 붙이는 장미,
 이런 장미를 구박하는 옥쟁이 진희. 갑자기 미스코리아 모드로 까부는 복희,
 파리 한 마리 잡겠다고 책상을 집어던지는 다구발 금옥.
 그리고 홀로 앉아 물을 마시는 수지를 close-up 하는 카메라.
 이때 '임 나미 그만 찍고 혼자 연습해봐'라는 춘화의 말에 카메라 누군가에게 건네지고
 화면에 나타나는 소녀 나미. 녀석들의 지도를 받으면 열심히 추는 모습이 귀엽다.
 엉망으로 찍은 아마추어의 촬영 솜씨지만 생기 넘치는 소녀들의 모습만은 확실히 느껴진다.
 녀를 놓고 TV를 보는 나미. 추억에 잠긴다.
 TV속화면. 갑자기 미술실 문 열리고 카메라의 시선으로 문 앞의 상미의 모습.
 춤 인 되어 표정 보면 불만 가득 잠시 바라보다 '캬' 문을 닫고 나가버린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다시 연습하는 씨니들. 열심히 춤 배우던 나미, 갑자기 밖으로 나간다.
 어디 가냐는 녀석들의 말에 떨리는 손 보여주며 물 마시러 간다는 나미.

62. 과거, 수돗가 - 오후

위 TV속 복장의 나미. 허겁지겁 물을 마시고 있다. 이때 나미를 부르는 목소리.

상미 (소리) 어이. 춘년!

뒤돌아보면 12썸에서 나미를 괴롭혔던 상미와 영진. 꺾렁한 후배 몇 명도 같이 있다.
서서히 나미를 둘러싸는 녀석들. 당황하는 나미.

상미 (피식) 태생이 시골 년이라 그런지 물도 어쩔 촌스럽게 먹냐?

키득거리는 녀석들. 노려보는 나미.

나미 뭔데?

상미 뭐긴 좀 궁금한게 있어서...

시골에서는 벗짚 쌓아논데서 막 폐셉도 하고 그런다며?

너도 해 봤냐?

나미 이 상미. (후~) 야구장 확 찢어버리기 전에 아가리 닥쳐라.

상미 (어이없는) 와~줄라 무섭네. (위협) 야. 너 하춘화네 믿고 줄라 까부는데..

개네가 너 끝까지 데리고 다닐 거 같지? 좇까는 소리 하지 마.

싫증나면 바로 아웃이야. 씨발년아.

나미 개소리 하지 마라.

상미 (확 때리려다 수업 중 소리에 멈추며) 야. 춘화랑 옛정을 봐서 봐준다. 조심해라.

건들건들 자리를 뜨는 상미 일행. 노려보는 나미.

63. 과거, 저녁시간의 교실 - 오후

남의 교실 와서 미스코리아놀이 하는 복회.

장미는 만족스러운 듯 쌍커피 다듬고 있고, 야간 자율학습 전 시끌벅적한 교실.

자기 자리에서 꺾렁거리고 있는 상미를 노려보는 나미. 성큼성큼 다가간다.

열심히 까불다가 자신 앞에 서 있는 나미를 보게 되는 상미.

상미의 손에 쪽지 하나 쥐어주고 앞문을 나서는 나미.

이게 뭔가 펴 보면 '소각장으로' 라고 써있다.

64. 과거, 소각장 - 해질녘

나무며 쓰레기들이 타고 있는 소각장. 혼자 상미를 기다리는 나미.

상미 (소리) 촌년!

보면 영진과 그때 꺾렁한 후배들을 대동하고 꺾렁하게도 등장하는 상미.

상미 (실실) 혼자 오란 얘기는 없길래.

잠시 당황하지만 이내 똑바로 노려보며 상미 바로 앞에 서는 나미.

거만하게 바라보는 상미.

나미 사과해.

상미 뭘?

나미 아까 일 사과해. 사과하면 없던 걸로 할게.

상미 (피식) 못하지. 사과.

나미 (후우~) 아까 욕해서 미안해. 내가 먼저 사과할게.
니가 1학년 때 춘화랑 친했다가 싸웠단 얘긴 들었어.
하지만 춘화도 니가 자꾸 뽀드 같은 거 손 데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있는 힘껏 나미의 배를 걷어차는 상미.

심하게 나뒹굴며 숨쉬기가 힘든 듯 괴로워하는 나미.

상미, 다가가 나미의 머리를 잡고 흔들면 괴로움에 반항도 못하는 나미.

상미 꺾치는 것도 정도 것 해야지. 야. 어이. 촌년.

니들 뭐? 씨니? 씨니 텐? (시시덕거리는 일행)

니들 시대 간 거 모르지? 왜냐?

오늘부터 니들 하나씩 데려다가 씨발 다 작살낼거거든.

순회공연 시작한다. (후배들에게) 아가들아 잘 봐둬라. (영진에게) 그거 쥘봐.

영진이 건네는 카메라. 상미, 찍을 준비를 한다.

상미 야. 옷 벗겨.

상미의 지시에 따라 나미의 옷을 벗기려 달려드는 일행들.

나미, 반항해 보지만 심한 통증과 쪽수의 완력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

이때 어디선가 들리는 목소리.

수지 (소리) 지랄을 썬다 아주.

소리의 근원지를 찾는 녀석들. 소각장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담배연기를 본다.

그리고 모습을 드러내는 수지. 당황하는 상미. 나미를 붙잡던 후배들도 상미 뒤로 물러난다.
손을 뻗어 나미를 일으키는 수지.

수지 (후배들 보며) 뭐냐? 꼬마들은?

후배들 ...(어줍잖은 인사)...

수지 좇밥 같은 년이. 너 또 뽀드했냐?

상미 끊은지 일년 됐거든?

수지에게 밀리지 않으려 세게 나가는 상미.

하지만 긴장했음을 느낄 수 있다.

수지 아까 그 멘트 다시 날려봐. 뭘 공연해?

자존심을 구기지 않으려 애써 수지를 노력하는 상미.

상미 (억지웃음) 아..나 이 씨발년.

이때 상미의 얼굴에 담배 똥을 튀기는 수지. 상미, 얼굴 부여잡고 괴로워한다.
곧바로 상미가 그랬듯이 발로 명치를 걷어차는 수지. 배를 부여잡고 그대로 넘어지는 상미.
수지, 소각로에서 불붙은 각목 하나를 집어 들고 넘어져 있는 상미 앞에 선다.
상미의 목을 밟고 불붙은 각목을 얼굴에 바짝 대는 수지.
녀석의 살벌함에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영진과 톨마니들.

수지 너(영진) 애 병원 좀 데려가야겠다.
이년 얼굴 확 태워버릴거거든. (상미에게) 못할 거 같지?

진짜로 지저버릴 듯 각목을 더 가까이 대는 수지. 기겁하는 영진.
공포에 비명을 지르는 상미. 좀 전의 기개는 사라지고 비참한 모습뿐이다.
급히 수지의 각목을 낚아채는 나미.

나미 수지야. 안 돼. 하지 마.

잠시 나미를 바라보던 수지. 각목을 집어 던지고 상미의 얼굴을 발로 툭툭 걷어찬다.
수지, 노력하면 슬금슬금 도망가는 후배들. 영진은 어정쩡하게 남아있다.
공포와 수치심에 대성통곡하는 상미.

수지 별레는 별레답게 찌그러져 살아야지.
나 같으면 쪽팔려서 학교 못 다닌다. (나미에게) 가자.

쭈뼛쭈뼛 수지를 따라가며 상미를 돌아보는 나미.
주저앉아 하염없이 우는 모습이 불쌍하기까지 하다.
부축하려는 영진의 손도 뿌리치며 계속해서 우는 상미.
야간 학습을 알리는 종소리 선행된다.

65. 과거, 교실 - 오후

상미의 빈 자리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나미. 그러거나 말거나 뭔가 신난 장미.

장미 아 맞다. 너 다다음주 연휴에 시간 비워 보라.
그때 우리 노랑진 멧돼지 친구들이랑 쫓인해서 엠티 가기로 했거든.
일박 이일. (신난) 준호 오빠도 온다는 거 아니겠냐.

갑자기 앞 문 열리고 분신인 몽둥이를 휘두르며 들어오는 학생주임. 열 받은 분위기다.
엄한 선생인 듯 일사분란하게 공부하는 척 하는 녀석들.

학주 (풍초 보이며) 어떤 년이 신성한 학교에서 담배질이야. 것도 양담배.
너네 아주 학교에서 담배피다 걸리면 기집애건 뭐건.....

이때 앞문 '쾅' 열리며 들어오는 상미.
옷에는 온 통 흙을 묻히고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엎드린다.
당황한 학생들, 특히 나미와 어이없는 학주.

학주 (엎드린 상미 보며) 너 뭐야. 야. 이게 미쳤나? 안 일어나나?!

학주의 지랄에도 미동도 하지 않는 상미. 열 받은 학주. 다가가 몽둥이로 찌른다.

학주 이런 미친년이 뽀드라도 쳐 먹었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옷웃 벗으며) 알았어. 너 오늘 해병 00기 땃다맛 좀 봐라.

본격적으로 상미를 구타하려 다가가는 학주. 이때 벌떡 일어나는 상미.

상미 그럼 씨발놈아 군대에 말뚝이나 박지 학교 와서 깡을 치나 병신새끼야.

예상치 못한 상미의 돌발 행동에 얼어버린 학주와 교실.
가방을 챙겨 나가다가 돌아서 교실 뒤 거울을 향해 가방을 던진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지는 거울.

상미 잘들 살아라 씨발년들아.

나가버리는 상미. 여전히 놀란 학생들.

학주, 정신을 차리며 그제 서야 욕을 하며 상미를 쫓아 나간다. 특히나 놀란 나미.
잠시 상미가 나간 곳을 바라보다 나미와 눈이 마주치면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는 수지.

66. 현재, 홍신소 - 오후

사장과 마주앉은 나미. 약간 난감한 표정의 사장.

사장 글쎄 이런 적이 거의 없는데. 이 정 수지씨 이 분이 좀 찾기가 힘드네요.

나미 이민 갔나요?

사장 (난감) 아니....출국은 안하셨는데.... 개명도 안 하시고....

하 이상하네. 아무튼 다른 회사랑 협력해서라도 더 찾아보겠습니다.

나미 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사장 네. 이런 경우는 신문에 뭐 부고 같은 거 광고 띄우는 방법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그리고 (직원에게 서류봉투 받아 건네며) 전에 따로 부탁하신 분.

봉투를 보는 나미.

67. 거리 - 오후 <현재 / 과거>

홍신소 앞. 아까 받은 서류 봉투를 바라보는 나미.
'이 준호'라 적혀 있다.

68. 과거, 기차 안 - 오후

강촌 가는 기차 안. 신나게 게임을 하는 준호 친구들과 써니 멤버들.
별책에 걸린 장미가 등을 맞는 차례가 오자 절정에 이르는 게임.
뭔가 다구를 이용해 장미를 때리는 금옥. 지랄하는 장미.
악자지결, 모두들 즐거운 가운데 멋지게도 홀로 앉아 헤드폰 끼고 음악을 듣는 준호.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런 준호를 힐끔거리며 그의 얼굴을 그리고 있는 나미.
이때 뒤에서 춘화 지나가자 급히 다른 그림을 그리는 척 하는 나미.

춘화 뭐 그러?
나미 어 그냥.
춘화 가서 같이 해.

게임에 합류하는 춘화. 다시 눈치 보며 준호를 그리는 나미.
차창을 보다가 나미와 눈이 마주치는 준호. 또 그놈의 살인미소....
수줍게 준호의 눈을 피하며 창밖을 바라보는 나미.
기차 밖에서 보여 지는 행복한 소녀 나미의 얼굴.

69. 현재, 기차 안 - 오후

위 창밖에서 보는 소녀 나미의 얼굴에서 성인 나미로 장면전환.
홍신소에서 받은 '이 준호'라 적혀 있는 봉투를 쥐고 있는 나미의 손.
추억에 잠기는 나미의 얼굴.

70. 현재, 춘천의 음악 감상실 - 밤

80년대 풍의 음악 감상실.
실업자로 보이는 중년 몇 사람만 앉아 있는 한가한 실내. 두리번거리며 들어오는 나미.
성인 나미의 등장이 아니었으면 80년대로 오해할 분위기.
D.J 박스엔 20대 초반의 잘생긴 청년 한 명이 음악을 틀고 있다.
잠시 바라보다 여자 종업원에게 커피를 주문하는 나미.
주방에 오더를 넣고 D.J 곁에 가서 시시덕거리는 것이 여자친구로 보인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초조하게 앉아 있는 나미.
테이블에서 신청곡을 적는 종지와 볼펜을 발견하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한다.

71. 과거, 춘천 호 - 밤

캠프파이어를 벌인 일행들.

어울리지 않게 멋진 노래(위 썬의 노래)와 기타연주를 하는 못생긴 오빠.

둘러 앉아 감상적이 되는 일행들.

이때 잠시 자리를 뜨는 준호. 슬그머니 눈치를 보며 그를 따라가는 나미.

72. 현재, 춘천의 음악 감상실 - 밤

D.J 부스에서 돌아가는 LP판. 리처드 샌더슨의 'reality' 흘러나온다.

그 옆으로 나미가 보낸 신청 곡 쪽지 보인다.

잠시 음악에 빠지는 나미. 이때 문 앞으로 들어오는 누군가의 실루엣을 보며 긴장한다.

예전 음악 감상실에서 그랬듯 어항 뒤로 모습을 보이는 남자. 중년의 준호다.

많이 변한 듯 혹은 그대로인 듯 알 수 없는 그의 모습.

73. 과거, 호수의 다른 곳 - 밤

준호 오빠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는 소녀 나미.

손에는 기차에서 그린 준호의 초상화가 들려있다.

저 멀리 앉아 혼자 앉아 담배 피는 오빠의 모습을 발견하는 나미. 떨린다.

74. 현재, 춘천의 음악 감상실 - 밤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보고 있는 준호.

바로 앞에 서는 나미를 보고 고개를 든다.

잠시 쳐다보는 준호.

준호 (미소) 오랜만에 오셨네요.

나미

준호 (머쓱) 아닌가?

나미 오랜만이에요.

준호?.....

75. 과거, 호수의 다른 곳 - 밤

용기 내어 다가가는 나미. 이때 준호 오빠 옆으로 다가오는 한 소녀의 모습. 수지다.

나무 뒤로 얼른 숨는 나미. 준호 오빠 옆에 앉는 나미.

담배를 꺼내서 물면 자연스럽게 불을 붙여주는 준호.

자주 있었던 일인 듯 담배를 피는 두 사람. 긴장감에 가슴이 터질 듯 한 나미.
이때 다른 곳을 보는 수지에게 등 뒤에서 헤드폰을 씌워주는 준호.
예전 음악 감상실에서 나미에게 했던 그대로다.
나미의 귀에는 'reality' 흐르고 잠시 쳐다보다가 마침내 진한 키스를 하는 두 사람.
충격 받는 나미. 시간이 멎는다.

76. 현재, 춘천의 음악 감상실 - 밤

서로 쳐다보는 두 사람. 준호는 아직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이때 이들 옆으로 다가오는 아까 그 젊은 D.J와 여학생.

D.J 아빠. 나 간다.
준호 너 일찍 좀 들어와. 싸돌아다니지 말고.
D.J 아빠나 일찍 들어와. 또 술 먹고 늦으면 엄마 이혼이래.
 (이 분) 커피 한 잔 드셨어.

웃으며 이들을 보내는 준호. 다시 나미를 쳐다본다.

준호 오천원이요.

잠시 생각에 잠기던 나미. 지갑을 열어 계산을 하고 나가려다 다시 카운터 앞에 선다.
의아한 준호. 그림인 듯 포장된 액자 하나를 건네는 나미.

나미 이제야 드려요.

나가는 나미. 잠시 멍 한 준호.
포장을 풀러 보면 예전 나미가 기차에서 그렸던 준호의 그림.
이게 뭔가 바라보다 생각이 났다는 준호의 표정.

77. 과거, 호수근처 - 밤

충격을 받은 나미. 달빛 좋은 호숫가를 하염없이 걷는다.
멍한 얼굴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78. 현재, 음악 감상실 앞 - 밤

허탈한 표정으로 걸어가는 나미.
코너를 돌아 사라지면 급히 음악 감상실에서 나오는 준호의 모습 보인다.
두리번거리지만 나미를 찾지 못하는 준호.

79. 과거, 기차 안 - 밤

창밖을 바라보며 홀로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소녀 나미.
갑자기 또 울컥 눈물이 쏟아진다.

80. 현재, 기차 안 - 밤

역시 창밖을 바라보며 기차를 타고 오는 성인 나미.
소녀 나미의 슬픈 눈물과 달리 감상에 젖은 눈물 한 줄기 흐른다.

81. <과거 / 현재> 교차 시퀀스. 길거리 - 밤

영영 울며 집으로 걸어가는 소녀 나미.
아직도 감정에 젖은 표정으로 걸어가는 성인 나미.
다른 시대와 장소지만 같은 시대와 장소에 있는 듯 묘사되는 두 사람.
마침내 어느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서로를 바라본다.
영영 우는 소녀 나미를 따뜻한 미소로 위로해주는 성인 나미.
그들 뒤에 있던 나뭇잎이 여름에서 가을로 장면전환 된다.

82. 과거, 학교 교정 - 오후

낙엽이 가득한 학교 교정.
가을 학교축제가 한창인 듯 운동장엔 만국기와 플랜카드, 들뜬 학생들로 가득하다.

83. 과거, 학교 강당 - 오후

학생들로 꽉 찬 강당. 무대에서는 단정하게도 차려 입은 합창단의 노래가 한창이다.
노래는 듣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장난치기 바쁜 왁자지껄한 학생 관객들.
무대 뒤에서 공연 준비를 하는 써니 멤버들. 다들 긴장한 모습.
슬쩍 관객석을 보는 금옥. 다수의 칸들이 남학생 무리들은 수지가 표지 모델인 잡지며
'사랑해요 정수지'등의 플랜카드를 들고 까불고 있다.

금옥 매스미디어의 힘이 좋긴 좋구만. 정 수지.
 잡지에 얼굴팔더니 팬들이 늘었어. 애 진짜 연예인 나가는 거 아니야?
수지 (괴식) 나가면 나가는 거지.
장미 오~~!!! 야. 너 탈렌트 하면 쌍커플 할 때 같이 하는거다.
진희 너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 이거(동작 흉내) 텀 할때 팍팍 좀 돌란 말이야.
 육덕한 년아.

장미 아~ 그게 잘 안되네.

연습해 보지만 여전히 잘 못 도는 장미. 시범 보이며 가르치는 진화.
얼굴은 멍~ 하지만 손을 떨고 있는 나미를 보는 수지.

수지 너 요새 왜 그래?

나미 아니야.

춘화 (떠는 손 보며) 가서 밥 먹고 와. 아직 시간 많아.

수지 한 번 쳐다보고 자리를 뜨는 나미.

84. 과거, 매점 - 오후

한가로운 매점. 홀로 앉아 빵 하나에 씨니텐 놓고 한 숨 쉬는 나미.
문구 코너를 보면 수지가 표지모형을 한 잡지가 크게 걸려있다.
너무 예쁘게 나왔다는 듯 바라보는 나미.
이때 나미의 '빙글빙글'을 훑어거리며 다가오는 누군가.
심드렁하게 돌아보며 놀라는 나미.
뿐드라도 했는지 비틀거리며 서 있는 상미의 모습.
나미를 발견하고 오싹한 웃음 지으며 다가온다. 긴장하는 나미.
나미 바로 앞에 털썩 앉는 상미.

상미 (대뜸)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나미

상미 전학생을 따뜻하게 보듬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다. 용서해라.

나미 ...아니...내가 더 미안해.

상미 그럼 우정의 의미로 빵 같이 먹을까? 줘봐.

빵을 찢으며 우걱우걱 먹는 상미. 아무래도 뿐드에 취한 것이 분명하다.

나미 너 뿐드 냄새나.

상미 (멈칫)...냄새나? 내가 냄새 나?

나미 아니 뿐드 냄새 난다고.

상미 씨발 뿐드를 했으니까 뿐드 냄새가 나지. (씨니텐 마시며)
씨니텐을 먹으면 씨니 냄새가 나고. 우히히. 너도 먹을래?

병 주위에 온통 빵크림이 묻은 씨니텐 병을 들이미는 상미.
괜찮다며 거절하지만 계속해서 권하는 모습이 위협적으로 보인다.
이때 창 밖에서 지나가다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영진.
상미가 나미에게 병으로 자꾸 위협하는 모양으로 오해한다.

85. 과거, 학교 강당 무대 뒤 - 오후

춤을 맞춰 보는 씨니 멤버들. 이들에게 급히 다가오는 영진.
막상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다.

영진하춘화.

춘화 ..?

불안한 표정의 영진.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춘화.

86. 과거, 매점 - 오후

좀 전보다 더 심한 실랑이를 벌이는 나미와 상미.

상미 마시라니까? 빵만 먹으면 뽕뽕하잖아.

나미 팬찮다니깐?

상미 (정색)왜? 더럽냐?

나미 (난감).....

상미 (갑자기 웃으며) 좀만 먹어라. 우정의 표신테.

이때 ‘야!!’ 왜치는 소리에 돌아보는 나미와 상미.

춘화를 필두로 모두 달려온 씨니 멤버.

이들을 보자 웃으며 씨니텐을 병채 들이키며 비틀비틀 춘화에게 다가가는 상미.

상미 어이. 하 춘화. 나도 오늘부터 니들 씨니 멤버 할라고.
자격 요건은 부잣집 딸내미어야 되는 거였나?..

상미가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따귀를 올려붙이는 춘화.
넘어지며 씨니텐 병 깨진다. 웅성거리며 구경하는 아이들.

춘화 너 뿐드하고 내 앞에 나타나면 죽여버린댔지?

넘어진 채로 대성통곡하는 상미. 예전 소각장의 모습처럼 초라하다.

춘화 (못 보겠다는 듯) 재 좀 일으켜.

다가가 상미를 일으키는 장미와 금옥. 일어나더니 갑자기 이들을 밀치며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피우는 상미. 미친 여자 같다.

Inter Cut 으로 보여 지는 공연장.

교실 내의 배경음악이 될 듯한 난타 공연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 춘화에게 지지당하며 우당탕 넘어지는 상미.

이때 문구점 앞문으로 뒤늦게 도착하는 수지. 이런 모습을 여유 있게 보고만 있다.

상미 이 씨발. 나는 왜 안 되는데? 왜 이년(나미)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는데?!!!
너네 이 씨발년들 내가 가만 놔 둘 거 같지?

책상을 집어 들고 던지려 하자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춘화.

다시 비틀비틀 일어나는 상미. 이때 뒤에 있던 수지에게 몸을 기대는 모양이 된다.

바로 뒤에 있는 수지를 보며 음산하게 웃는 상미.

수지 뭘 쪼개?

상미 (웃으며) 어이. 이쁜년.

갑자기 팔을 휘두르며 '툭' 수지의 얼굴을 치는 상미. 살짝 고개가 젓혀지는 수지.

그리고 정적.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이내 놀라 수지를 바라보는 모든 씨니 멤버.

상미의 손에 들려 있는 날카롭게 깨진 씨니텐 병. 피가 묻어있다.

바닥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선혈. 수지의 얼굴 보면 한쪽 턱부터 이마까지 깊게 자상이
파이고 이내 바닥에는 수돗물 쏟아지듯 피가 쏟아진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수지.

자신의 잡지모델 사진이 걸려있는 문구점 유리에 비친 지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 예쁜 얼굴을 가로지르는 깊게 찢어진 자국. 계속해서 피가 흐른다.

공포에 비명을 지르는 수지. 순식간에 지옥도가 되어버린 매점.

모두 놀라고 충격을 받는 씨니. 장미는 기절해 버린다.

상미는 본드에 취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듯 웃고만 있다.

수지와 눈이 마주치고 충격을 받는 나미.

87. 과거, 학교 복도 - 오후

쇼크에 비명을 지르는 수지를 부축하고 양호실로 달려가는 춘화와 진희, 씨니 멤버들.

모두들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린다. 마냥 울며 쫓아가는 나미.

이 난리를 구경하는 복도의 수많은 학생들. 뒤늦게 선생 몇 명도 무슨 일이냐며 달려온다.

수지의 상태를 보고 비명을 지르는 한 여선생.

한 선생은 씨니들과 같이 수지를 데려가며 빨리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를 친다.

88. 과거, 학교 교정 - 오후

구급차와 경찰차가 출동한 아비규환의 운동장. 우르르 몰려든 학생들 때문에 더 혼잡하다.

저리들 가라며 난리 난리치는 학생주임. 그래도 서로 보겠다고 기웃거리는 학생들.

거의 정신이 나간 듯 비명 지르며 구급차에 옮겨지는 수지. 이런 수지를 울며 보내는

씨니 멤버들. 나미는 수지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인파에 밀려 뒤에서 울고만 있다.

89. 과거, 훈육실 - 오후

일렬로 서서 학생주임에게 따귀를 맞는 씨니 멤버들.

학주 이런 게 같은 년들. 니들 다 퇴학이야!
장학사도 왔는데 이 지랄을 해 봐?!!

엉엉 울며 차례로 맞는 녀석들.
잘못했다며 비는 진희, 겁에 질려 커튼 뒤에 숨는 복희 등,
예전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고 겁에 질린 아이들의 모습만 남아있다.
서럽고 무서워 서로 부둥켜안고 하염없이 우는 춘화와 나미.

90. 과거, 나미의 집 - 밤

아빠에게 따귀를 맞는 나미. 말리는 엄마.

아빠 니들 공부시키려고 다 팔고 어렵게 상경했더니 한 놈은 감옥 가고
한 놈은 무기정학당하고. (속상한) 니들 이럴 라면 집 나가! 호적 다 파가!
엄마 아이고. 왜 애 따귀를 때려. 놀란 애들.
아 그렇게 이년아. 왜 나쁜 년들이랑 어울려서.. 넌 그런 애 아니잖아.

하염없이 우는 나미. 할머니는 '오빠 잘못했다며' 나미父를 말린다.
갈등이 절정에 다다를 무렵 문 열리며 들어오는 초췌한 나미 오빠.
할머니를 제외하고 얼음이 되는 식구들.

종기 (절망) 동지들 다 팔아먹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갱니다 아버지. 앞으로 개처럼 살립니다.

엎드려 대성통곡하는 종기.
종기를 끌어안는 나미母. 울며 나가버리는 나미.
홍분한 가운데 통곡을 하는 할머니를 진정시키는 아빠. 착한 아저씨.
집안에 울음소리만 가득하다.

91. 과거, 수지의 집 앞 - 밤

양말도 안 신고 울며 걷는 나미. 목적지에 거의 도착한 듯 울음 추스린다.
그리고 누군가를 발견한 표정. 수지의 집 앞에 모여 있는 씨니 멤버.
모두 죽을상이다. 울음을 멈추는 나미.

나미 수지는?

말 없는 씨니. 어렵게 입을 여는 장미.

장미 병원.....(울컥) 자살 기도했네.

장미의 말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는 나미. 몇 명 같이 운다.
나미를 일으켜 세우는 춘화. 끌어안고 애써 위로한다.

춘화 괜찮아. 안 죽었어. 괜찮아.

하지만 여기저기서 새어나오는 울음소리.

나미 (울먹) 우리 이제는 못 보는 거야?

춘화 (단호) 임 나미. 그깟 퇴학 좀 당했다고 우리 씨니가 해체할 수 있겠어?
다시 뭉쳐야지. 다시 뭉쳐서 수지도 다시 오고 저번에 못한 우리 공연도
다시 해야지. 안 그래?

일동 (말 없는 녀석들).....

춘화 안 그러냐고?!!

하나 둘 씩 울음을 멈추는 녀석들.

파이팅을 외치자는 듯 손을 내미는 춘화.

춘화 우리 다시 다 만나는 거다.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넌 있으면 찾아가서 응징할거고
남편한테 맞고 사는 넌 있으면 남편 포함해서 응징할거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죽을지는 모르겠는데 죽는 그 날까지 씨니는 해체 안 한다.

하나 둘 씩 손을 포개는 녀석들. 눈물이 글썽한 나미도 손을 올린다.

멀리서 이들 모습을 지켜보는 카메라. 수없이 빛나는 밤하늘의 별이 보인다.

92. 현재, 인천공항 - 오전

입국장에서 나오는 나미의 남편. 오랜 출장 탓인지 지쳐 보인다.

마중 나온 사람을 찾는 모습. 누군가를 발견하고 의외라는 표정의 남편.

마중 나온 나미를 발견. 활짝 웃는 나미.

남편 왜 나왔어?

나미 보고 싶어서.

남편 (피식) 별 일 없었어?

잠시 생각하던 나미, 미소 지으며

나미 별 일 없었어.

93. 현재, 차 뒷자리 - 오전

잠 든 남편과 나란히 뒷자리에 앉아있는 나미.

봉 기사 막힐까봐 시내 뺏는데....죄송합니다.

나미 ...봉 기사님.

봉 기사 네?

나미 원래 시내가 더 막혀요.

봉 기사 (혼난 학생처럼)네....

창밖을 바라보는 나미. 예전 나미가 다녔던 학교 근처를 지나고 있다.
급히 등교하는 학생들의 행렬. 나미의 눈에는 80년대 학생들이 보이고,
소녀적 자신을 비롯한 써니 멤버들이 보인다.
너무나 환하게 웃는 예쁜 소녀 나미와 눈이 마주치는 성인 나미.
소녀 나미는 성인 나미를 향해 밝게 웃어준다. 이때 울리는 핸드폰.

나미 어 장미야.

나미의 얼굴로 점점 다가가는 카메라.
굳어지다가 땀땀해지는 나미의 표정. 말없이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긴다.
갑자기 핑 도는 눈물.

94. <에필로그> 현재, 장례식장 - 밤

나미가 그랬던 춘화의 초상화가 영정사진으로 걸려있는 어느 장례식장.
밝게 웃는 모습에 의상은 춘화가 바랐던 것인 듯 화려하다.
썰렁하기 그지없는 영정을 지키는 나미, 장미, 진희.

진희 혼자 살다 가면 이게 자랄이구나. 상주가 없는 거.

장미 너는 그거 무서워서 바람난 놈이랑 같이 사냐?

진희 아 빌딩 하나 명의이전 했으면.... 참을만해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런테잖아. .

장미 그래서. 맞바람은 피시고?

묘하게 시선을 피하는 진희. 궁금함을 못 참는 장미.

장미 똥구나? 똥어. 이런 배신자. 같이 피기로 해 놓고.

진희 누가 똥데? 그리고 넌 쌍꺼풀 다시 하고 생각해본다며?
이 우유부단한 년아.

나미 거 영정 앞에서 욕 들 좀 하지 마라.....미친년들.

키득거리며 웃는 세 사람. 이때 이들을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면 금옥이다.

나미 어떻게 왔어? 이 시간에?
금옥 어.... (씨익) 밥상 옆고 왔어.

나미와 진희는 다 안다는 듯 씨익~ 웃고 장미는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금옥 장미야 잘 있었어? 넌 바로 알아보겠다 애.
장미 서 치과집 금지옥엽 금이야 옥이야 서금옥이!

포옹하는 두 사람. 심하게 반가워한다.

금옥 잠깐만. 춘화한테 먼저 인사하고.
나미 아니 잠깐 기다려봐. 친구들 다 오면 같이 할라고.
금옥 또 오기로 했어? 누구? 수지? 수지 괜찮아? 복희도 온데? 미스코리아 됐대니?
복희 (소리) 상금이 얼마 안되더라고.

돌아보면 저번과 달리 말끔한 복희. 서로 알아보며 반갑게 포옹하는 아줌마들.

복희 천하에 하 춘화가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썰렁해.
나미 본 편은 어제까지 다 하고 오늘은 친구들이랑만 하고 싶다고.
장미 춘화가 좀 유별나잖나. 좀 기다렸다가 수지 오면 같이 절 하자.
복희 정 수지 오기로 했어? 얼굴은 다 나왔대니?
나미 사실 찾지는 못했는데(신문 보여주며) 혹시 이거 보고 올까 해서 광고는 냈거든.

신문 보면 부고 란에 실려 있는 광고.

‘하춘화 은퇴공연. 2011년 0월00일 00 장례식장. 특별 게스트 ‘씨니’
정 수지 필히 참석 요망’ 등 요란한 그림과 문구가 보인다.

나미 일단 열두시 까지만 기다려 보자. 니들 시간 괜찮아? 금옥이?
금옥 밥상 제대로 앉았다니깐? 오늘 갈 때도 없어. 복희는 뭐 해?
복희 뭐 이것저것 하다가....만 일 좀 알아보고 있어.
금옥 좋겠다. 그래. 여자도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남편이랑 시댁 눈치 안 보고 살지.

복희를 살피는 나미와 장미. 복희는 의외로 침착하고 태연하다.

복희 (씨익) 눈치 보고 사는 것도 꼭 나쁘지만은 않아.
장미 (화제전환) 왜? 금옥이? 시댁에서 갈귀?
 한 번 출동해 줄까? (진희에게) 야. 전에 나미 딸 괴롭히는 애들
 우리가 대가리 터뜨린 애기 안 해줬나?
금옥 뭔데? 뭔데?
장미 이야~ 이거 얘기하면 길고도 짧은데....

수다 꽃 피는 장례식장.

[Cut To - 시간 경과]

밤 12시를 가리키는 시계.
약간은 피곤한 듯 널브러져 있는 아줌마들.
나미, 시계를 보더니 일어난다.

나미 수지는 못 볼라나 보다. 인사 할까?

하나 둘 씩 일어나는 아줌마들. 이때 이들 앞에 등장하는 묘령의 한 남자.
뭔가 선물을 가져왔다는 표정으로 서 있는 그를 의아하게 보는 아줌마들.

장미 하 춘화 장례식 오셨어요?
변호사 하 사장님 변호합니다. 씨니... 멤버들이시죠?
장미 (의아).....네.....
변호사 잠깐 앉으시죠.

쭈뼛쭈뼛 앉는 아줌마들.
두툼한 서류 봉투에서 뭔가를 꺼내 읽을 준비를 하는 변호사.

변호사 하 사장님 유언장 집행하려고 왔습니다.
 사장님이 직접화법으로 낭독을 부탁하셔서 다소 거친 언어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대뜸) 야 이년들아.

놀라서 쳐다보는 아줌마들. 분위기 살벌해 지고 금옥은 뭔가 집는다.

변호사 아니 여기 적힌.....다시 읽겠습니다. '야 이'...이건 읽었고....
 다들 왔니? 못 온 사람도 그러려니 이해한다.
 25년 전 수지네 집 앞에서 평생 만나자고 한 맹세 그동안 서로 못 지켰구나.
 미안하다. 갑자기 죽는다고 나타난 내가 제일 야속한 년이지.
 나미야. 친구들 찾아줘서 고마워. 비록 오래는 못 살다가지만 니가 그랬듯이
 나도 인생에 역사가 있는 내 인생 주인공이라는 건 알고 간다.
 좋은 선물 잘 가져갈게. 대신 씨니 리더 자리 임 나미한테 넘기고 간다.
 이제라도 평생 만나면서 정의사회 구현도 하고 즐겁게 살아. 내 뭉까지. 안녕.

숙연해 지는 아줌마들.

장미 (정적을 깨며) 축하해. 임 나미.

하나 둘 씩 박수를 치는 아줌마들. 수줍은 듯 웃으면서 손을 들어 화답하는 나미.

변호사 (다른 서류 펴며) 사장님이 다른 친구분들한테도 선물 남기셨습니다.
 김 장미씨?

장미 (손들며) 네?

변호사 아.... 김 장미씨한테는.....보험 설계사시죠?

장미 네.

변호사 여기 계신 친구분들. 김 장미씨 회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보험 종류에 상관없이 다 가입하시기로 했고 보험료는 전액 일시불로 상환하시기로 했습니다.

놀라는 장미와 친구들.

장미 ...아니...어떻게....

변호사 사장님이 남기신 재산이 좀 많습니다.

대부분 회사 정리하고 사회 환원하시는데 쓰셨구요....(뭔가 남았다는 표정)

일동?.....

변호사 '니가 보험 왕이다 이년아!'라고 하셨네요.

신나서 킥거리는 아줌마들.

변호사 황 진희씨?

진희 네?

변호사 황 진희씨는....'부 짱은 니가 해라!'라고 하셨네요.

진희저 원래 부 짱이었는데요.

장미 부 짱은 나였지 이 년아.

진희 니가 뭘 부 짱이야 이 년아. 나랑 수지랑 비슷하게 넘버 투였지.

변호사 섭섭하세요?

진희 아니 뭐....

변호사 섭섭하시면 이거 읽어드리겠는데...

진희 (살짝 빠진) 섭섭 안 해요.....(궁금) 뭔데요?

변호사 (대뜸) '넌 돈 많잖아 이 년아~'

더 신나서 웃는 아줌마들. 쭈뼛거리며 괜히 장미에게 투정부리는 진희.

변호사 서 금옥씨?

금옥 네.

변호사 대학 때 국문학 전공하셨죠?

금옥 했죠?

변호사 하 사장님 회사 중에 작은 출판사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인턴으로 일 배우시고 육 개월 후 정 직원, 육년 후 시세 감안해서 매출 150% 성장 2년 이상 유지하시면 경영 사장 임명하시라고 했습니다.

오오~ 환호하는 아줌마들.

변호사 이 말도 남기셨네요.

금옥(궁금).....

변호사 망하면 데리러 올 거야 이 년아.

변호사의 성대모사에 신나는 아줌마들.
슬쩍 복회를 바라보는 나미.

변호사 류 복회씨.

복회 (긴장) 네.

변호사 (뜸들이더니) 따님이랑 같이 사실 아파트 남기셨습니다.

복회 (눈물을 글썽인다)

변호사 두 분 생활비, 따님 교육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운용되는 펀드에서
모두 지급 될꺼고요....류 복회 님 재활치료하실 병원 예약 다 하셨습니다.
치료 끝나는데로 직업 훈련 받으시고 서 금옥씨 다니실 회사 1층 상가에
원하시는 가게로 창업 시켜드리랍니다. 물론.... 비용은 전액 지불 됐습니다.

복회 (기쁨의 눈물) 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

변호사 꼭 술 끊으세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복회. 장미도 얼싸 안고 따라 온다.
자신도 감격스러운지 눈물을 훔치는 변호사. 다시 추스르고 다음 서류를 읽는다.

변호사 근데 조건이 있으십니다.

주목하는 아줌마들.

변호사 며칠 전에 등기 우편 하나씩들 받으셨죠? 울동 비디오.

[Cut To - 시간 경과]

영정 앞. 실루엣으로만 보이는 씨니 멤버들.

진희 난 그게 이건지 몰랐지. 연습 했니?

장미 살 뻔다고 몇 번 따라 했지. 안무 니가 짠거잖아.

진희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겠어? 넌 좀 했어?

금옥 난 그거 하다가 시엄마랑 대판 하고 밥상 었었잖아. 복회는?

복회 몸이 다 기억을 하더라. 몸이.

나미 시끄럽고 빨리 합시다. 드디어 무대에 올리는구나. 변호사님. 가지쇼.

영정 앞에 준비한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변호사.

서서히 흘러나오는 보니엠의 'sunny'. 대형을 갖춰 군무를 시작하는 아줌마들.

처음엔 살짝 어색하더니 춤발이 받기 시작하는 듯 적극적으로 추기 시작한다.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는 제대로 된 안무. 립싱크까지 하며 춤추는 아줌마들.

이게 뭐하는 짓인가 구경 오는 몇 사람도 보인다.

그러거나 말거나 땀까지 흘려가며 열심히도 추는 씨니.

걸 그룹이 그러하듯 자신들의 파트에는 앞에 나서 개인기까지 작렬!

장미는 그토록 하기 힘들었던 턱까지 완벽하게 소화해 낸다.

영정 앞에서 단체로 춤추는 아줌마들. 남들이 보기엔 미친 상황이다.
한 참 열심히 춤을 추던 나미. 누군가를 발견한 듯 멈춘다.
나미의 시선을 느낀 다른 아줌마들.
영정실 밖 누군가를 발견하고 하나 둘씩 멈춘다.
영정실 밖에 서 있는 중년의 수지.
너무나 변한, 평범한 얼굴이지만 모두들 그녀를 알아보는 듯 잠시 넋을 잃는다.
이런 그들을 향해 환하게 웃는 아줌마 수지.
이내 이들의 모습 소녀들로 바뀌고 영정 속 춘화 마저 소녀의 모습으로 보인다.
만가움에 눈물이 맺히는 나미의 얼굴.

tuck & petti의 'time after time' 흐르고 타이틀 백 한편에 영화에 등장했던,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소녀, 아줌마 씨니들의 모습이 나미의 그림체로 흐른다.

2010 .5 .1
- the end